
우리나라 양형 현황에 관한 기초보고



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

2007. 8. 10.

전문위원 손철우

목 차

I. 보고의 범위	1
II. 양형실무에 대한 비판	2
1. 법원별 · 재판부별 양형편차	2
2. 하급심 양형 비중의 약화	5
3.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양형	8
4. 양형심리의 불충분	9
III. 양형사례에 대한 기초 분석	10
1. 분석의 범위와 방법	10
2. 살인죄	11
3. 강간죄	15
4. 강간치상죄	18
5. 강도죄	22
6. 강도상해죄	24
7. 뇌물수수죄	27
별지1(살인죄 양형사례)	32
별지2(강간죄 양형사례)	64
별지3(강간치상죄 양형사례)	68
별지4(강도죄 양형사례)	103
별지5(강도상해죄 양형사례)	112
별지6(뇌물수수죄 양형사례)	142



우리나라 양형 현황에 관한 기초보고

전문위원 손철우

I. 보고의 범위

- 우리나라는 양형과 관련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양형의 조건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면서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자수·자복시의 감경, 작량감경, 법률상 감경 등을 규정할 뿐이고 양형에 관한 보다 구체적 기준 또는 원칙이 입법화되어 있지 않음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 양형의 보다 구체적 기준을 입법화하지 않고 법관의 재량에 맡긴 것은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양형실무에 대하여는 구체적 양형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① 법원별/법관별 양형 편차, ② 하급심 양형 비중의 약화, ③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양형 등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음
- 아울러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도 양형심리가 형식적인 것에 그쳐 피고인의 개별적 특성, 사건의 특수성 등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양형이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됨
- 양형은 입법자와 법관의 분업적 공동 작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양형 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올



바른 해결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도 법원의 구체적인 양형실무와 함께 형사법 전반에 걸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함

- 다만, 형벌체계의 합리화, 특별법의 남용, 범죄별 법정형의 불균형 등과 같은 형사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연구는 중국적으로 입법으로 이어져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양형위원회는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제1기 양형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고려할 때 제1차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점, 양형과 관련된 일부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당분간 형사법에 대한 연구는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결국 향후 우리나라의 양형현황에 대한 연구는 법원의 양형실무에 대한 평가 및 분석에 보다 중점을 두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양형실무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문제점의 원인과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임
-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양형현황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양형실무와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된 몇 가지 비판에 대하여 관련 통계 등을 이용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아울러 우리나라의 양형현황에 관한 보다 구체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형법에 규정된 살인죄 등 몇 가지 주요 범죄에 관하여 실제 양형 사례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도 시도하고자 함

II. 양형실무에 대한 비판

1. 법원별·재판부별 양형 편차

가. 개요

- 법원의 양형실무와 관련하여 그동안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범죄사실 및 양형사유가 유사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법원별·



재판부별로 상당한 양형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임

- 즉, 양형이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져 양형편차가 전혀 없게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양형실무에서는 법관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라고 볼 수 없는 양형편차가 존재한다는 비판임

나. 관련 통계

◆ 지방법원별 실형률(2006년도) ◆

법원	합의부 사건 실형률(%)	단독 사건 실형률(%)
서울중앙지방법원	50.5	21.0
서울동부지방법원	45.9	14.3
서울남부지방법원	47.4	18.4
서울북부지방법원	63.3	12.8
서울서부지방법원	65.3	17.7
의정부지방법원	42.5	14.5
인천지방법원	42.5	14.3
수원지방법원	48.6	15.4
춘천지방법원	29.8	12.1
대전지방법원	36.5	17.1
청주지방법원	23.2	17.5
대구지방법원	41.9	14.5
부산지방법원	41.0	15.1
울산지방법원	35.6	10.1
창원지방법원	53.9	16.1
광주지방법원	36.5	10.9
전주지방법원	46.3	11.6
제주지방법원	60.6	15.3
전국평균	43.7	15.1



다. 분석

- 불합리한 양형편차는 피고인 개인의 불이익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 위 나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법원의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국민들에게 있어 가장 주된 관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실형 여부에 있어서 법원별로 적지 않은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
 - 합의부 사건의 경우 2006년도를 기준으로 실형률이 가장 높은 서울서부지방법원(65.3%)과 가장 낮은 청주지방법원(23.2%)의 편차는 42.1%로 나타남
 - 단독 사건의 경우 2006년도를 기준으로 실형률이 가장 높은 서울중앙지방법원(21.0%)과 가장 낮은 울산지방법원(10.1%)의 편차는 10.9%로 나타남
- 그러나 위 통계자료만을 기초로 법원별 또는 재판부별로 법관의 재량을 벗어나는 불합리한 양형편차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법원별 실형률에는 살인죄와 같이 실형이 예상되는 중한 범죄의 발생 빈도, 지역 경제의 규모, 지역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특히 억제가 필요한 범죄(예컨대,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에서는 교통사고 관련 범죄) 등과 같은 지역적 특성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침
 - 실제로 실형률에서 외관상 큰 차이가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의 경우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2006년도 전체 합의부 처리건수에서 살인죄, 강도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등과 같이 실형이 예상되거나 실형 비율이 비교적 높은 중한 범죄의 처리 건수를 비교한 결과 현저한 차이가 확인됨



◆ 중한 사건의 처리 비교표 ◆

법원명	전체 처리건수	중한 사건의 처리건수	중한 사건의 처리비율
서울서부지방법원	361	182	50.4%
청주지방법원	541	145	26.8%

- 양형기준의 설정 목표가 양형의 획일화가 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한 합리적인 양형편차는 용인되어야 함
- 결국 양형실무상 불합리한 양형편차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범죄별로 각 법원의 실제 선고사례를 심도 깊게 비교·분석하여 양형편차의 존부와 그 원인을 확인하여야 함

2. 하급심 양형 비중의 약화

가. 개요

- 우리나라의 양형실무에 대하여 주요 외국과 비교할 때 양형에 있어서 하급심의 비중 내지 권한이 약화된 상태에 있고, 이는 항소를 유발하여 종국적으로는 사법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가져 오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나. 관련 통계

(1) 항소율

구분	합의사건 항소율(%)					단독사건 항소율(%)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상반기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상반기
전국 평균	54.0	53.2	56.0	52.3	57.3	30.7	28.0	26.7	27.5	29.0



(2) 파기율 및 파기 후 양형변경률

(가) 고등법원

구분	전체파기율(%)					파기 후 양형변경률(파기사건대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상반기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상반기
전국 평균	51.8	45.7	46.3	48.5	43.4	76.2	75.8	74.7	75.9	71.1

(나) 지방법원 항소부

구분	전체파기율(%)					파기 후 양형변경률(파기건수대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상반기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상반기
전국 평균	51.7	45.5	44.7	47.6	39.8	80.7	76.3	75.7	73.1	73.9

(3) 외국의 항소율과 파기율¹⁾

구분		항소율(A)	파기율(B)	제1심 변경률(A×B)
영국	중죄사건	6% ~ 7%	18% ~ 20%	1.1% ~ 1.4%
	경죄사건	1.2% ~ 1.4%	55%	0.7% ~ 0.8%
미국	연방법원	10% ~ 19%	9%	0.9% ~ 1.7%
독일	경죄사건	13% ~ 22%	40% ~ 50%	5.2% ~ 11%
프랑스	경죄사건	6.2%	62%	3.8%
스위스	정식기소	6.2% ~ 8.0%	32.1% ~ 44.4%	2.0% ~ 3.6%
일본	전체 공판사건	10.6% ~ 11.8%	14.0% ~ 15.6%	1.5% ~ 1.8%

1) 이 부분 통계자료는 대법원,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모색 결과보고서(Ⅲ)”, p.264에서 인용함



다. 분석

- 위 나항의 관련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율이 합의부 사건의 경우 50%를 상회하고, 단독 사건의 경우 약 3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음
- 나아가 항소심의 파기율, 특히 파기 후 양형변경률이 높아 주요 외국과 비교할 때 양형에 있어서 제1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 고등법원의 경우 2007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양형변경률이 71.1%에 이르러 결국 제1심 합의부에서 정한 형 중 17.7%(=항소율 57.3% × 파기율 43.4% × 양형부당 파기율 71.1%)가 변경됨
 - 지방법원 항소부의 경우 2007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양형변경률이 73.9%에 이르러 결국 제1심 단독판사가 정한 형 중 8.5%(=항소율 29% × 파기율 39.8% × 양형부당 파기율 73.9%)가 변경됨
 - 이와 같은 양형변경률은 영국(중죄사건 : 1.1% ~ 1.4%, 경죄사건 : 0.7% ~ 0.8%), 미국 연방(0.9% ~ 1.7%), 일본(1.5% ~ 1.8%)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임
- 항소심에서 파기 후 양형변경률이 높은 이유는 공소장 변경, 관련 사건의 병합 등으로 인하여 양형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데 있음
 - 실제로 2007. 6. 22. 서울고등법원 형사법관 세미나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07. 3. 1.부터 2007. 5. 31.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한 사건 중 공소장 변경, 사건 병합 등을 제외한 순수한 양형 부당이 파기사유였던 경우는 53.8%로 나타남
- 양형파기 내역에 있어서는,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양형 변경 사건 전체에 대비하여 고등법원은 26.4%, 지방법원 항소부는 32.6%로 나타남
-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 선고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양형에 있어 제1심 비중의 약화는 당연히 항소율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종국적으로는 제한된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어려워져 형사



사범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향후 보다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파기비율이 높은 이유 및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다만, 제1심의 양형부당으로 인한 파기도 ① 항소 후 사정변경(예를 들어 합의)이 발생한 경우, ② 항소 후 사정 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양형기준의 설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사정 변경이 없는 제1심 파기의 원인이 보다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연구가 보다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양형

- 그동안 각종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원의 양형이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한 양형, 불법정치자금에 관한 양형, 일부 성폭력범죄에 관한 양형 등에 있어서 법원의 양형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이 있었음
- 다만,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양형에 대한 비판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몇몇 사건에 대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양형 전반에 대한 체계적 조사결과나 연구 성과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임
- 양형위원회는 양형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된 만큼(법원조직법 제81조의2제1항) 현재의 양형실무가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유사한 범죄에 대한 외국의 양형사례는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도 연구를 진행하여 함

4. 양형심리의 불충분

- 형사재판이 유무죄에 대한 심리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양형심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실제로



그동안 많은 법관들은 양형심리에 대하여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제출한 양형자료에 의존하여 형을 정하는 모습을 보여 왔음

- 이와 같은 양형심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양형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 공판절차를 유무죄 심리 절차와 양형심리 절차로 이분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어 적지 않은 논의가 진행됨
- 먼저, 양형조사관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소년법에 대한 판결전 조사제도는 도입되어 있으나 성인범의 경우 피고인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법정 외에서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양형자료 조사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의존하는 현행 양형자료 조사방법은 그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연방의 경우 연방법원 소속 기관인 보호관찰소(Probation)의 보호관찰관(probation officer)이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양형자료 조사보고서(Presentence Report)를 작성하는 등 양형자료 조사 업무를 담당함
 - 미국 각 주(州)의 경우 총 2,000개가 넘는 분리된 기관에서 양형조사 및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다만 각 주(州)의 경우 양형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명칭이 probation office, probation and parole office, justice center, rehabilitation center 등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그 운영 체계도 ① 주 법원 또는 하급법원 소속인 경우(일리노이, 콜로라도주 등), ② county 정부 소속인 경우(캘리포니아, 위스콘신, 오레곤주 등), ③ 주 정부 소속인 경우(아칸사스, 플로리다, 버몬트주 등), ④ 혼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테네시, 뉴욕, 버지니아주 등) 등 동일하지 않음
 - 영국은, 2003년 판결 전 조사제도를 도입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양형자료만으로 양형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법원은 ① 내무성 소속의 보호관찰관이나 ②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사회복지담당관에게 양형 판단에 필요한 조사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독일은 원칙적으로 법관에 의하여 양형 사유가 조사되나 법관 뿐 아



나라 검사 등 사법기관의 양형에 관련한 판단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법보조제도(Gerichtshilfe)가 존재하며, 사법보조인(Gerichtshilfer)은 검사, 판사 등의 위임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격, 성장과정과 환경,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생활 여건 등을 조사하여 사법보조보고서(Gerichtshilfebericht)를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함

- 프랑스는 범죄인에 대한 적절한 형벌권의 행사를 위해서, 수사판사에 의한 인적사항 조사제도(enquête de personnalité)를 이용하여 주로 양형사유를 조사하고 있고,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형 선고 이후의 변경된 사정을 고려하여 형집행판사의 주재 하에 이미 선고된 형의 집행을 변경하기도 함
- 다만, 현재 양형조사관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므로 양형조사관제도에 대하여는 우선 국회의 입법 여부를 지켜본 후 연구의 진행 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 한편 일부에서 주장하는 공판절차 이분론을 비롯하여 공판 단계에서의 양형심리 개선 방안은 양형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반드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다만 제1차 양형기준 초안 마련을 위한 시간적 여유 등을 고려할 때 그 연구시기를 제1차 양형기준 초안에 대한 연구가 종료된 직후와 같이 다소 조정할 필요성은 있음

Ⅲ. 양형사례에 대한 기초 분석

1. 분석의 범위와 방법

- 이번 기초보고를 위한 연구기간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하게 양형사례 분석을 위한 대상 기간, 법원 및 범죄를 한정할 필요성이 있었음
- 대상 기간은 최근의 양형사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고일이 2006. 1. 1.부터 2007. 6. 30.까지인 경우로 정함



- 대상 법원은 전국적인 양형사례 분석을 위하여 고등법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등 5개 법원을 선정함
- 대상 범죄는 법원별 실행률 편차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 합의부 사건 중 범행결과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형법에 규정된 살인죄, 강도죄, 강도상해죄, 강간죄, 강간치상죄, 뇌물수수죄를 선정함. 다만 살인죄 등이 포함된 사건의 경우에도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다른 범죄와 함께 병합 기소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양형 사례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건은 제외함
- 보다 정확한 양형사례 분석을 위해서는 대상 사건의 기록까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이번 연구 단계에서는 일단 제1심 판결(항소된 사건은 항소심 판결 포함)을 통하여 기초적인 분석을 시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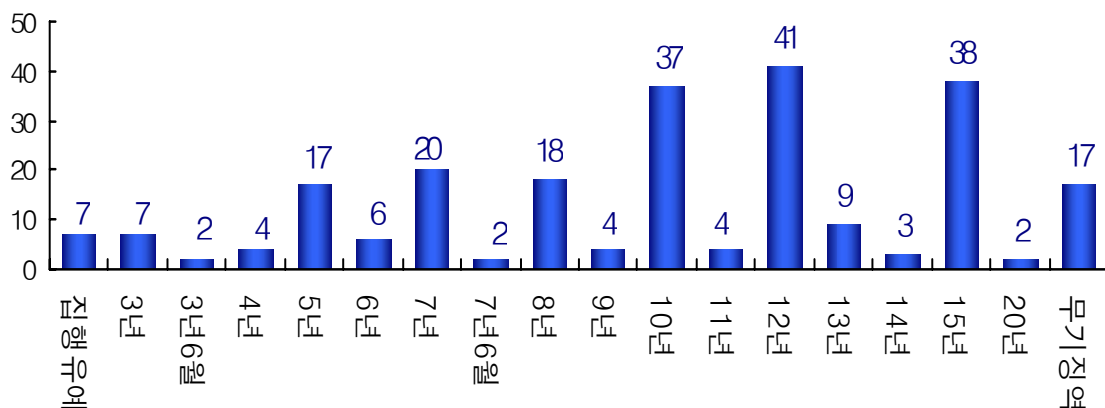
2. 살인죄

가. 법정형(형법 제250조제1항)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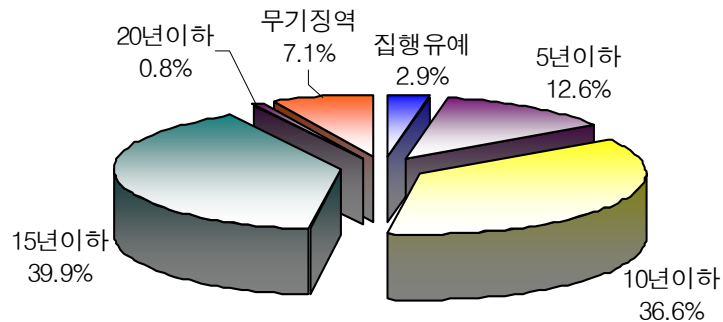
나. 선고내역

(1) 선고형 분포(전국법원 합계 238건)





(2) 주요 선고형 비중



(3) 분석

- 살인죄의 경우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법률상감경 등을 통하여 형법에 규정된 살인죄의 유기징역형의 하한인 5년 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8.4%(238건 중 20건)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살인 범행으로 인한 책임의 정도에 대하여는 법관과 입법자 사이의 인식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 양형사례(5개 법원 합계 93건 - 별지1 참조)

(1) 양형인자

- 분석 대상 판결에서 언급하고 있는 살인죄의 양형인자는 ① 유족과의 합의, ② 범행의 동기, ③ 범행의 계획성, ④ 범행의 수단 또는 방법, ⑤ 피해자와의 관계, ⑥ 범행 후 정황, ⑦ 반성, ⑧ 피고인의 전과, 연령, 건강 상태와 같은 개인적 특성 등이었는데, 이하에서는 우선 몇 가지 주요 양형인자에 대하여 살펴봄



(가) 유족과의 합의

- 다른 양형인자의 변동은 없었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인 망인의 유족과 합의한 경우 제1심에서 유기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항소심에서 모두 파기되고 형이 감경됨
 - 감경 범위는 최소 2년{징역 12년 → 징역 10년(대구지방법원 사례 2)}부터 최대 6년{징역 14년 → 징역 8년(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 2)}까지로 나타남
- 다만,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범행수법도 잔인하며 자신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사건(대구지방법원 사례 28)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1인의 유족과 하였으나 항소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함

(나) 범행의 동기

- 범행의 동기를 제외한 나머지 양형인자와 범죄사실이 대체로 유사한 사건들의 경우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여지가 있는 사건은 그렇지 않은 사건과 비교하여 선고형이 낮게 나타남
 - 형인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와 단순히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부엌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대구지방법원 사례 7)에 대하여는 징역 8년이 선고되었으나, 동생인 피고인이 형인 피해자로부터 20년 동안 폭행을 당하고 사건 당일에도 머리 등을 얻어맞게 되자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사건(부산지방법원 사례 19)에 대하여는 징역 6년이 선고됨
- 범행의 동기는, ① 피해자의 지속적 폭력행사와 같이 피해자의 일부 잘못된 행동이 피고인의 범행 실행에 일정한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또는 ② 피해자의 건강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 행위와 같이 피해자가 특별히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범행 실행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로 고려됨



○ 특히 범행의 동기는 살인죄에 있어서 매우 드문 양형(약 2.9%)이라고 할 수 있는 집행유예 선택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속적 폭행과 위협 등에 시달려 우울증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해한 경우(대전지방법원 사례1, 부산지방법원 사례 1), 딸인 피해자의 술주정과 폭행에 장기간 시달리다가 살해한 경우(부산지방법원 사례 2)와 같이 범행의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충분한 사건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됨

(다) 범행의 계획성

- 다른 양형인자가 유사하더라도 살인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우발적 범행에 비하여 선고형이 높게 나타남
-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밖으로 불러낸 후 준비한 주방용 칼로 살해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 2)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징역 14년이 선고되었고,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화가 나서 살해한 사건(부산지방법원 사례 4, 14)에 대하여는 징역 8년 또는 징역 9년(항소심 결과)이 선고됨
- 특히, 범행의 계획성은 형 선택의 단계에서부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분석 대상 판결 중 살인죄의 전과가 적극적으로 고려된 사례를 제외하고 제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사건(대전지방법원 사례 14, 대구지방법원 사례 28, 29, 30, 부산지방법원 사례 23, 광주지방법원 사례 14, 15)의 경우 모두 피고인이 살인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경우로 분류할 수 있음

(라) 피해자와의 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 형제, 부자 관계와 같은 특수한 신분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신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선고형이 높게 나타남
-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부산지방법원 사례 13)에 대하여는 징역 12년이, 특수한 신분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부산지방법원 사례 14)에 대하여는 징역 9년(항소심 선고결과)이 선고됨

-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수한 신분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편으로 유족과 쉽게 합의되거나 또는 유족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립되는 양형인자 사이의 상쇄효과로 인하여 피고인이 낮은 형을 선고받는 결과가 종종 나타남
 - 즉, 피고인이 처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부산지방법원 사례 6, 7)에 대하여 유족의 선처 호소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 모두 징역 7년이 선고됨
 - 나아가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친손자를 살해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 4)에 대하여는 징역 3년(항소심 결과)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처를 살해한 사건(대전지방법원 사례 2)에 대하여는 징역 4년 등 비교적 낮은 형이 선고됨

(2) 제1심 판결의 파기

- 분석 대상 판결 합계 93건 중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진 사건은 66건이었는데 그중 18건이 파기(파기율 27.3%)되어 파기율 자체는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그러나 항소심에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된 건수가 8건(파기건수 대비 비율 44.4%)에 이르러,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살인죄의 경우는 제1심과 항소부가 책임의 정도에 대한 인식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강간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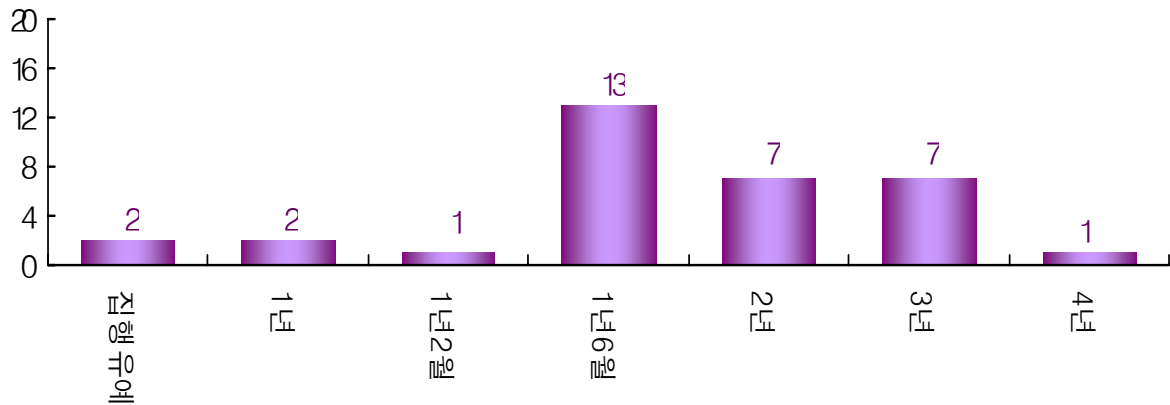
가. 법정형(형법 제297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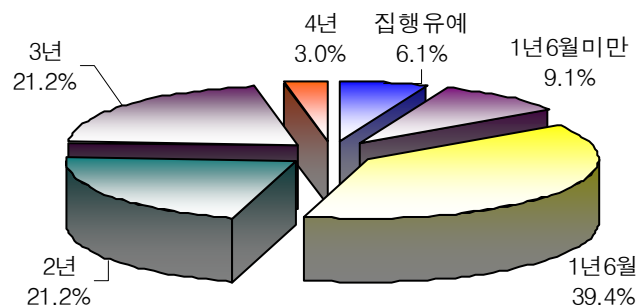


나. 선고내역(전국 법원 합계 33건)

(1) 선고형 분포



(2) 주요 선고형 비중



(3) 분석

- 실무상 강간죄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되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므로 양형자료가 다소 부족함
- 일단 위 통계자료에 의하면 강간죄로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에 대한 형이 집행유예로 정하여진 경우는 6.1%로 비교적 높지 않았음
- 한편, 강간죄의 경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는 24.2%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났고, 이는 강간 범행으로 인한 책임의 정도에 대하여 법
관과 입법자 사이에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고 판단됨

다. 양형사례(3개 법원 합계 11건 - 별지2 참조)

(1) 양형인자

- 분석 대상 판결에서 언급하고 있는 강간죄의 양형인자는 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② 범행 후 정황, ③ 반성, ④ 피해자와의 관계, ⑤ 범행의 계획성, ⑥ 피고인의 전과, 연령, 건강 상태와 같은 개인적 특성 등이었는데, 이하에서는 우선 몇 가지 주요 양형인자에 대하여 살펴봄

(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강간죄는 피해 여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 주는 범죄로 실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함
- 분석 대상 판결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 2, 대구지방법원 사례 1, 부산지방법원 사례 1)에 대하여는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음
- 나아가, 항소심 단계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를 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 4, 대구지방법원 사례 3)에 있어서는 실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이 모두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됨

(나) 피해자와의 관계

-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또는 교제 중이던 여성을 강간한 경우와 비교하여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더 높은 사건에 대하여는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됨
 - 피고인이 내연녀의 딸로서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부산지방법원 사례 2)에 대하여 징역 2년이 선고됨



(2) 제1심 판결의 파기

- 분석 대상 판결 합계 33건 중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진 사건은 8건이었는데 그중 4건이 파기(파기율 50%)되었고, 파기 사건 중 항소심에서 사정 변경이 없었던 경우는 1건(25%)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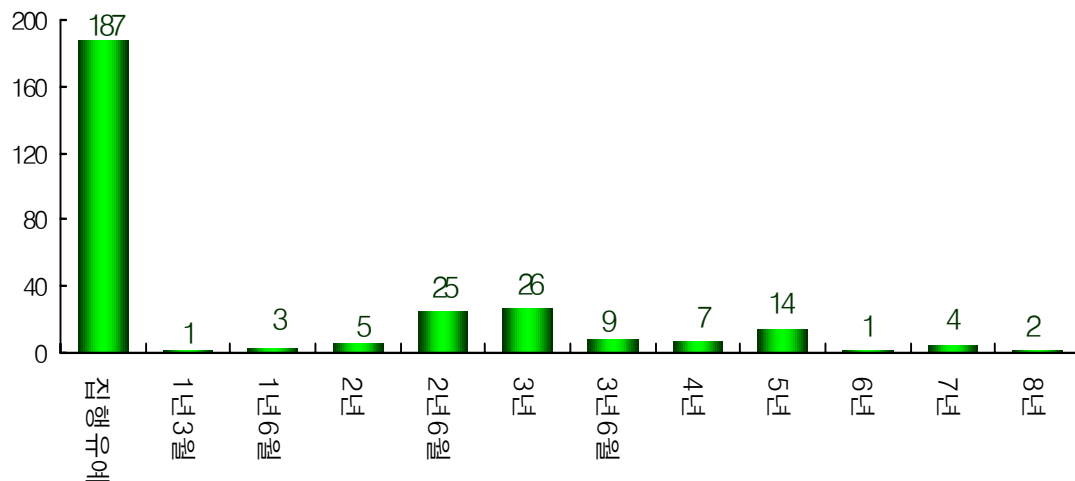
4. 강간치상죄

가. 법정형(형법 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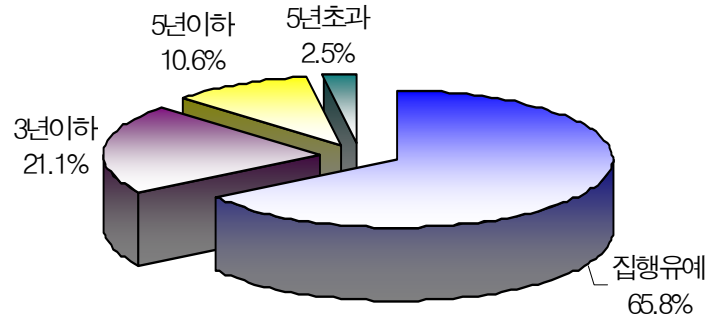
나. 선고내역(전국 법원 합계 284건)

(1) 선고형 분포





(2) 주요 선고형 비중



(3) 분석

- 강간치상죄의 선고형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집행유예 비율이 65.8%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실무상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집행유예 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를 하기 때문으로 보임
- 또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는 7.4%(284건 중 21건)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강간치상의 범행으로 인한 책임의 정도에 대하여 법관과 입법자 사이에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판단됨

다. 양형사례(5개 법원 합계 103건 - 별지3 참조)

(1) 양형인자

- 분석 대상 판결에서 언급하고 있는 강간치상죄의 양형인자는 ① 합의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② 강간범행의 기수 여부, ③ 상해의 정도, ④ 피해자의 연령, ⑤ 범행의 계획성, ⑥ 반성, ⑦ 피해자와의 관계, ⑧ 범행 후 정황, ⑨ 피고인의 전과, 연령, 건강 상태와 같은 개인적 특성 등이었는데, 이하에서는 우선 몇 가지 주요 양형



인자에 대하여 살펴봄

(가) 합의(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강간치상죄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고, 특히 피해 여성에게 있어서 유형화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준다는 점에서 실무상 피해자의 의사는 가장 중요한 양형인자로 고려됨
- 이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한 양형인자로 작용함
 - 분석 대상 판결 중 제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69건 중 64건은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4건은 피고인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경우였음
 - 다만, 1건(부산지방법원 사례 12)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강간 범행이 미수인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이 고령인 점(67세)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됨
- 항소심에 있어서도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가 된 경우 집행유예 결정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하였고(부산지방법원 사례 19 : 징역 3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결정자가 아닌 피고인(모두 8건)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함

(나) 강간범행의 기수 여부

-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보다는 강간 범행이 미수에 이른 경우 작량 감경 또는 집행유예의 사유로 고려되고 있었음
- 그러나 양형에 대한 영향에 있어서는 합의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중 다른 양형인자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강간범행의 기수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 1, 2)에서 선고형은 동일하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었음

- 실형이 선고된 사건도 다른 양형인자는 유사하나 강간범행의 기수 여부만이 차이가 있는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 21, 22)에서 선고형은 징역 2년 6월로 동일하게 나타남

(다) 상해의 정도

- 강간치상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한 경우는 보통 작량감경 또는 집행유예의 사유로 고려되고 있었음
- 한편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 형을 가중하는 요소가 되기보다는 작량감경을 제한하거나 또는 다른 불리한 양형요소와 결합하여 실형이 선고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적응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 27)에서 제1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함

(라) 피해자의 연령

-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강간치상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장기간 계속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양형인자로 작용함
- 실형이 선고된 사건 중 피해자가 12세인 사건(부산지방법원 사례 24)에서는 징역 4년, 13세인 사건(광주지방법원 사례 12)에서는 징역 5년(항소심 결과는 징역 3년), 16세인 사건(광주지방법원 사례 13)에서는 징역 3년이 각 선고됨
-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통상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 1회의 작량감경 후 주형이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정하여지고 있으나,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 20, 광주지방법원 사례 6) 주형을 징역 3년 또는 4년으로 정한



경우가 나타남

- 다만, 가해자인 피고인도 청소년인 사건(대구지방법원 사례 11, 부산지방법원 사례 14)에서는 주형이 징역 2년 또는 2년 6월로 나타났고, 피고인이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건과 차이를 두지 않고 주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 사례도 나타남(부산지방법원 사례 15, 광주지방법원 사례 7, 9)

(2) 제1심 판결의 파기

- 분석 대상 판결 중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진 사건은 31건이었는데 그중 58.1%인 18건이 파기되었고, 항소심에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된 건수는 6건(파기건수 대비 33.3%)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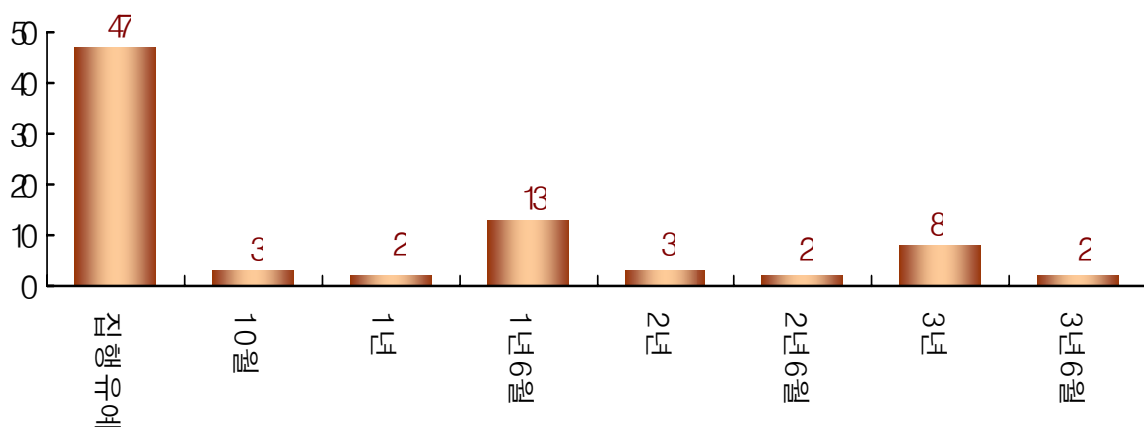
5. 강도죄

가. 법정형(형법 제333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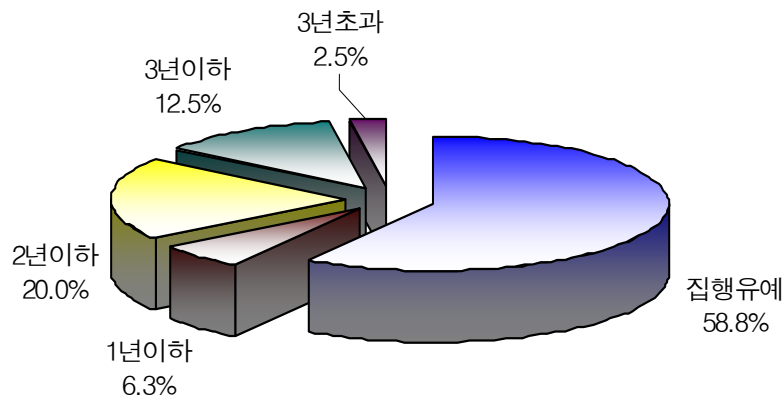
나. 선고내역(전국 법원 합계 80건)

(1) 선고형 분포





(2) 주요 선고형 비중



(3) 분석

- 강도죄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58.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또한 실형이 선고된 경우 강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는 12.5%(80건 중 10건)에 불과하여, 강도 범행으로 인한 책임의 정도에 대하여 법관과 입법자 사이에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됨

다. 양형사례(5개 법원 합계 24건 - 별지4 참조)

(1) 양형인자

- 분석 대상 판결에서 언급하고 있는 강도죄의 양형인자는 ① 합의 또는 재산상 피해 회복, ② 범행의 계획성, ③ 재산상 피해의 정도, ④ 반성, ⑤ 피고인의 전과, 연령, 건강 상태와 같은 개인적 특성 등이었는데, 이하에서는 우선 몇 가지 주요 양형인자에 대하여 살펴봄

(가) 합의(또는 재산상 피해 회복)

- 강도죄 역시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또는 범행 후 재산상 피해의 회복 여부는 중요한 양형인



자로 작용함

- 분석대상 판결 중 제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18건은 모두 피해자와 합의되었거나 가환부 등을 통하여 강취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음
- 항소심에 있어서도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감경함(대전지방법원 사례 1, 징역 4년 → 3년)

(나) 전과

- 강도죄를 범한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작량 감경 또는 집행유예의 사유로 고려되고 있었음
-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됨
 - 누범기간 중 유사한 방법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 누범 전과가 상습절도인 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 9)에는 징역 3년이, 이중 범죄인 경우(부산지방법원 사례 4)에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됨

(2) 제1심 판결의 파기

- 분석 대상 판결 중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진 사건은 2건에 불과하여 분석의 의미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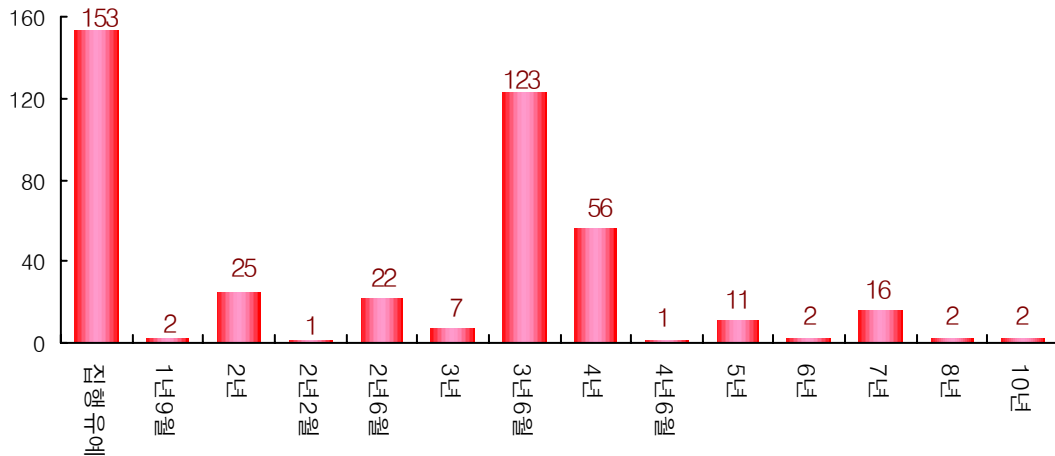
6. 강도상해죄

가. 법정형(형법 제33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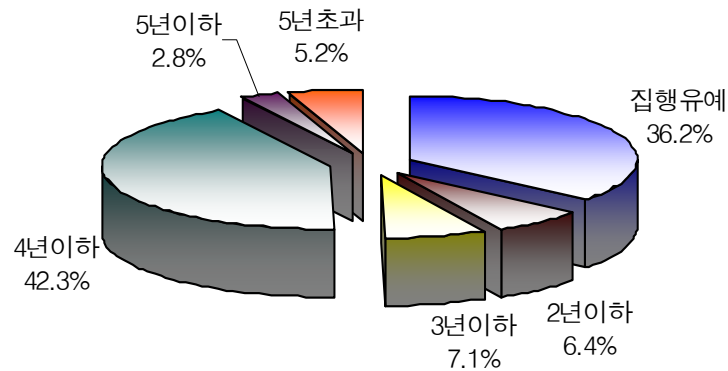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나. 선고내역(전국 법원 합계 423건)

(1) 선고형 분포



(2) 주요 선고형 비중



(3) 분석

- 강도상해죄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36.2%로 강간치상죄의 65.8%와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음
- 실형의 경우, 형법에 규정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실제로 7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는 20건에 불과하여 전체 423건 중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강도상해의 범행으로 인한 책임의 정도에 대하여도 법관과 입법자 사이에 상당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양형사례(5개 법원 합계 82건)

(1) 양형인자

- 분석 대상 판결에서 언급하고 있는 강도상해죄의 양형인자는 ① 합의, ② 재산상 또는 신체적 피해의 정도, ③ 범행의 계획성, ④ 범행수법의 위험성, ⑤ 반성, ⑥ 피고인의 전과, 연령, 건강 상태와 같은 개인적 특성 등이었는데, 이하에서는 우선 몇 가지 주요 양형인자에 대하여 살펴봄

(가) 합의

- 강도상해죄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양형인자로 작용함
 - 분석대상 판결 중 제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40건 중 38건은 모두 피해자와 합의된 사건임
 -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① 피고인이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사건(대전지방법원 사례 3), ②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이며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사건(부산지방법원 사례 4)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기도 함
- 항소심에 있어서도 제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히 부정적인 양형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집행유예 결정자가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광주지방법원 사례 9, 10), 집행유예 결정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한 것으로 나타남(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 8, 징역 4년 → 3년 6월)

(나) 범행수법의 위험성

- 강도상해는 그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범죄이지만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강도상해의 범행과 비교하여 위험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함



-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노려 미리 준비한 빗자루 막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리고 현금 등을 강취한 사건(대구지방법원 사례 13)과 현금을 인출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석재 타일로 내리쳐 현금 등을 강취한 사건(부산지방법원 사례 24)의 경우 모두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되었으나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제1심이 그대로 유지됨

(다) 전과

- 강도상해죄를 범한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작량감경 또는 집행유예의 사유로 고려되고 있었음
- 동종 전과가 존재하고, 특히 동종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함
- 누범기간 중 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누범 전과가 상습절도 또는 절도죄인 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 15, 부산지방법원 사례 19, 23)에는 징역 3년 6월 또는 징역 4년이 선고된 반면, 이종 범죄인 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 16)에는 징역 2년이 각 선고됨

(2) 제1심 판결의 파기

- 분석 대상 판결 합계 82건 중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진 사건은 35건이었는데 그중 11건이 파기(파기율 31.4%)되었음
- 한편, 항소심에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된 건수는 4건(파기건수 대비 비율 36.4%)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7. 뇌물수수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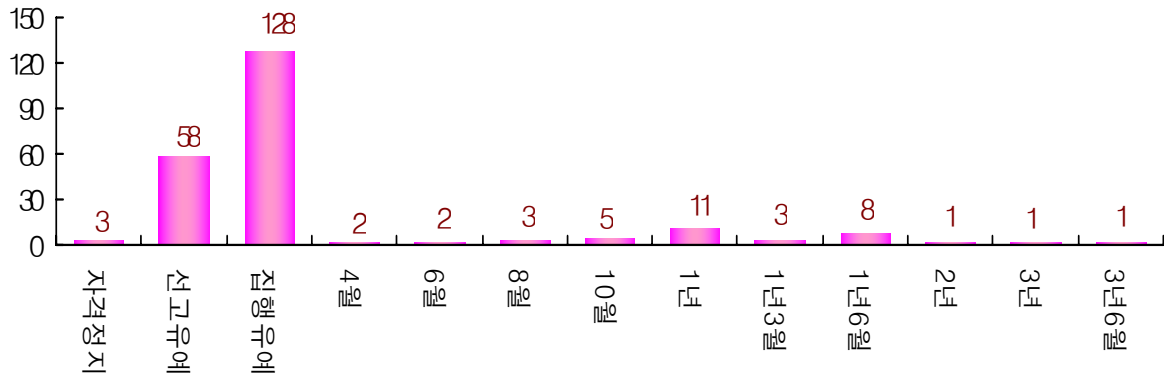
가. 법정형(형법 제129조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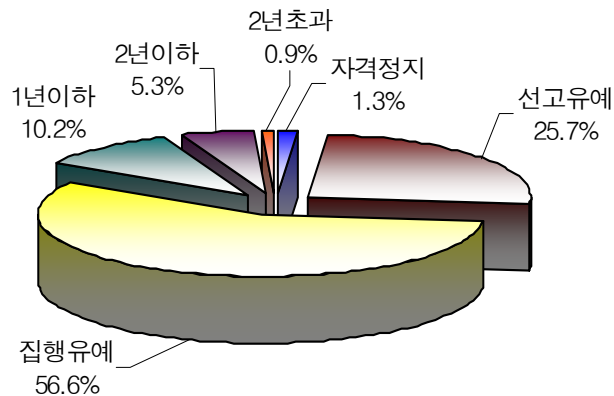


나. 선고형 내역(전국 법원 합계 226건)

(1) 선고형 분포



(2) 주요 선고형 비중



(3) 분석

- 뇌물수수죄의 경우 주목되는 부분은 선고유예가 차지하는 비중이 25.7%로 매우 높았고, 집행유예 역시 56.6%에 이르러,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가 차지하는 비중이 82.3%로 나타남.
- 이는 법원이 양형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불이익이라는 형벌 외 요소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다른 한편으로는 뇌물수수의 범행으로 인한 책임의 정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일반 국민과 법관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고 불 여지도 있음

- 실형이 선고된 37건의 경우, 징역 1년 이하가 23건으로 37건 중 62.2%를 차지하였고, 징역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37.8%로 나타남

다. 양형사례(4개 법원 합계 26건)

(1) 주요 양형인자

- 분석 대상 판결에서 언급하고 있는 뇌물수수죄의 양형인자는 ① 직무관련성의 정도, ② 뇌물수수의 경위, ③ 직무의 성격, ④ 수뢰액, ⑤ 피고인의 전과, 공무원으로서의 근무 태도, 건강 상태와 같은 개인적 특성 등이었는데, 이하에서는 그중 몇 가지 주요 양형인자에 대하여 살펴봄

(가) 뇌물수수의 경위

- 공무원이 수동적으로 뇌물을 수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함
 - 피고인이 남품업체에 요구하여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약 3,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 14)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이 선고됨(항소심 결과는 징역 1년)
 - 피고인이 자신이 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요구하여 약 18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건(부산지방법원 사례 1)에 대하여는 금액이 다액이 아니지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됨(항소심 결과는 선고유예)

(나) 직무의 성격

-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가 수사 등이어서 다른 직무와 비교하여 더 높은 도덕성 내지 청렴성이 요구되거나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함
 - 수사 대상자 또는 내사대상자로부터 수뢰한 경우(서울중앙지방법



원 사례 11, 13, 17, 대구지방법원 사례 1), 자신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업체로부터 수뢰한 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 16)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됨

- 다만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200만 원 정도를 수뢰한 경우(부산지방법원 사례 4)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으나 초범이고 파면된 경우(광주지방법원 사례 1)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됨

(다) 수뢰액

- 수뢰액이 많은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함
- 직무의 성격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될 수 있는 경우 또는 직무와의 직접적 관련성이 높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 판결에 있어서는 수뢰액이 1,800만 원 정도를 넘는 다액인 경우 대체로 실형을 선고함
- 시청 6급 공무원의 수뢰액이 약 4,000만 원인 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 12) 징역 10월이 선고됨
- 고위직 군인의 수뢰액이 약 3,500만 원인 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 14, 항소심 결과는 징역 1년) 징역 1년 6월이 선고됨
- 국립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수뢰액이 1,830만 원인 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 15) 징역 10월이 선고됨
- 소방공무원의 수뢰액이 2,000만 원인 경우(대구지방법원 사례 2, 항소심 결과는 징역 1년) 징역 1년 6월이 선고됨
- 구청 공무원의 수뢰액이 2,000만 원인 경우(부산지방법원 사례 5, 항소심 결과는 집행유예) 징역 1년 3월이 선고됨
- 다만 수뢰액이 약 2,600만 원 또는 2,900만 원이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음(광주지방법원 사례 2)

(2) 제1심 판결의 파기

- 분석 대상 판결 합계 26건 중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진 사건은 11건이었고 그중 6건이 파기(파기율 54.5%)되었는데, 파기된 6건 모



두 항소심에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나타나지 않아 제1심과 항소심 사이에 뇌물수수의 범행으로 인한 책임의 정도에 대하여 상당한 인식 차이가 있다고 보임

- 파기된 6건 중 3건(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 11, 13, 부산지방법원 사례 4)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하였고, 1건(부산지방법원 사례 1)은 1심의 집행유예를 선고유예로 변경하였으며, 2건(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 14, 대구지방법원 사례 2)은 실형을 유지하면서도 형을 1년 6월에서 1년으로 감경함



별지1

살인죄 양형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1]

범죄사실	동거녀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나무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치고, 커튼 천을 이용하여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저수지에 사체를 유기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족 엄벌 호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15년(항소기각)	

[사례2]

범죄사실	피해자가 유홍주점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불러낸 후 미리 준비한 주방용 칼로 수회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계획된 범행, 유족 엄벌 호소
	유리한 요소	자수, 반성
선고형	징역 14년(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 파기, 징역 8년)	



[사례3]

범죄사실	3개월 정도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말다툼 끝에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자 양손과 헤어드라이기 전선줄을 이용하여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자동차 안에 사체를 유기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족 엄벌 호소
	유리한 요소	자수, 초범, 반성,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9년(항소심에서 사체유기 무죄, 유족과 합의, 파기, 징역 8년)	

[사례4]

범죄사실	뇌성마비 등 선천성 질병을 앓고 있는 손자인 피해자(4세)의 상태를 비관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 후 정상적으로 출근, 피해자와의 관계
	유리한 요소	자백, 초범, 유족 선처 호소, 피고인 연령(70세)
선고형	징역 5년(항소심 파기, 징역 3년)	

[사례5]

범죄사실	윤락녀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다가 말다툼 끝에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한 후 피해자 소유 휴대폰, 지갑 등을 절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 수범 잔인함, 강도상해 등 실형 전과 5회, 누범, 유족 엄벌 호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15년(항소심에서 다른 사건과 병합)	



[사례6]

범죄사실	친아버지인 피해자 A와 계모인 피해자 B가 자신을 홀대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들 집에서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식칼로 피해자 B를 수회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법 잔인, 피해자 B 유족 엄벌 호소
	유리한 요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반성, 피해자 A 처벌 불원
선고형	징역 7년 6월(항소심 파기, 징역 10년)	

[사례7]

범죄사실	후배인 피해자와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외부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후 나이트클럽에 있는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족 엄벌 호소, 범행 수법 잔인
	유리한 요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우발적 범행, 반성, 벌금 전과 1회
선고형	징역 12년	

[사례8]

범죄사실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다시 동거하다가 가정 불화가 계속되어 말다툼 끝에 집 안에 있던 식칼로 1회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족 엄벌 호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12년	



[사례9]

범죄사실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도박으로 소비한 후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변에 있던 쇠팅지로 수회 내리쳐 살해한 후 언덕 아래쪽에 사체를 유기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족 엄벌 호소
	유리한 요소	반성
선고형	징역 15년	

[사례10]

범죄사실	피해자 A의 제안으로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피해자 A가 이익금을 제대로 나누어주지 않고 오히려 사업자금도 부담하지 않은 피해자 B에게 본부장의 직책까지 주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B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낸 후 여행용 가방 등으로 이용하여 사체를 은닉하고, 다음 날 피해자 A와도 말다툼 끝에 컴퓨터 USB선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하려다가 체포되어 미수에 그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자 2명, 유족 엄벌 호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선고형	무기징역(향소기각)	



[사례11]

범죄사실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후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과도로 1회 찔러서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살인죄로 징역 15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로 인한 실형 전과 6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선고형	무기징역	

2. 대전지방법원

[사례1]

범죄사실	남편인 피해자의 지속적 폭행이나 학대로 인한 우울증 및 충동조절 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언을 한 후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철제 아령으로 수회 때려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초범, 자녀들 및 피해자 누나 선처 호소, 피해자의 일부 잘못,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항소기각)	



[사례2]

범죄사실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처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면서 시비를 걸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자와의 관계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정신질환, 유족 엄벌 원하지 않음,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4년 및 치료감호	

[사례3]

범죄사실	남편인 피해자가 평소 술주정을 하고 욕설을 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부인, 피해자와의 관계
	유리한 요소	유족 선처 호소, 초범,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일부 잘못
선고형	징역 7년(항소심 파기, 징역 6년)	

[사례4]

범죄사실	보수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설립 및 영업 준비 업무를 담당하는 등 회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생활비 등을 받지 못하여 다툼이 있던 중 망치로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20회 정도 때려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누범기간 중 범행(집행유예 결격자), 계획된 범행, 범행 수법 잔인
	유리한 요소	자수, 자백, 유족과 합의
선고형	징역 9년(항소기각)	



[사례5]

범죄사실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A를 찾아가 칼로 피해자 A와 그 옆에 있는 피해자 B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0분 후 다른 장소에서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 C를 칼로 수회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계획된 범행, 범행 수법 잔인, 누범기간 중 범행, 재범의 위험성 높음, 유족 엄벌 호소
	유리한 요소	반성
선고형	징역 22년(항소기각)	

[사례6]

범죄사실	자신이 근무하는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몰래 가져가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당하자 가게 카운터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피해자의 일부 잘못,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5년	

[사례7]

범죄사실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가 술 주정을 부리자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보도블록을 집어 들려고 하자 먼저 주변에 있던 시멘트 블록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음주로 인한 폭력행사 등 재범의 위험 높음
	유리한 요소	자백, 유족과 합의, 피해자의 일부 잘못,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5년(항소기각)	



[사례8]

범죄 사실	동거 중인 내연녀 피해자 A에게 상해 가하고, 피해자 A의 오빠인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B가 헤어지라고 하자 화를 내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족과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9년(항소기각)	

[사례9]

범죄사실	동거녀의 후배인 피해자와 대화 중 모욕감을 느껴 양손으로 목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 소유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으며 공사현장에 사체를 유기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족과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초범, 반성
선고형	징역 14년	

[사례10]

범죄사실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의 어머니인 피해자 B로부터 헤어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주방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 B를 수회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 A에게 7주 상해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자측 엄벌 호소
	유리한 요소	반성, 특별한 범죄전력 없음,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13년	



[사례11]

범죄사실	친구인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아버지로부터 질책을 받자 앙심을 품고 칼을 구입하여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 집에 들어가 수회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족 엄벌 호소, 계획된 범행
	유리한 요소	초범, 자백, 반성
선고형	징역 14년	

[사례12]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방안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1회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자와의 관계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자녀들 선처 호소,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7년	

[사례13]

범죄사실	분열형 인격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동거녀인 피해자의 조상 신이 피해자를 죽이라고 명령한다고 생각하여 취침 중인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자와의 관계
	유리한 요소	자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7년 6월	



[사례14]

범죄사실	내연 관계에 있던 망 피해자 A와 공모하여 간통죄로 고소하겠다는 피해자 A의 남편인 피해자 B를 미리 준비한 나일론 끈으로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구덩이에 묻어 유기. 그후 피해자 A와 동거하다가 피해자 A가 피고인이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서 화를 낸다는 등의 이유로 야산으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한 나일론 끈으로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구덩이에 묻어 유기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계획된 범행, 범행수법 잔인, 살인 피해자 2명
	유리한 요소	반성,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음
선고형	무기징역	

3. 대구지방법원

[사례1]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족과 미합의,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 많음
	유리한 요소	반성,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10년(항소기각)	

[사례2]

범죄사실	동거녀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칼을 휘두르자 이를 빼앗아 피해자를 찌르고, 피해자가 쇠파스를 휘두르면서 저항하자 이를 빼앗아 피해자를 수회 때려서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 수법 잔인, 유족과 미합의
	유리한 요소	초범,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12년(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 파기, 징역 10년)	



[사례3]

범죄사실	동거남인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고 이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는 등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를 탄 술을 먹인 후 회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절단하고 복부를 수회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계획된 범행, 범행수법 잔인, 유족 엄벌 호소
	유리한 요소	자수, 자백, 초범
선고형	징역 15년(항소기각)	

[사례4]

범죄사실	처인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면서 내연남을 불러 달라고 하자 화가 나서 과도로 피해자를 1회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자와의 관계
	유리한 요소	초범, 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피해자 일부 잘못, 유족 선처 호소
선고형	징역 3년(항소기각)	

[사례5]

범죄사실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관계 유지를 요구하고 괴롭히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망치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쳐 살해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고, 사체 다리 부분을 절단하여 사체 손괴하고 배수로 등에 사체를 유기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계획된 범행, 범행수법 잔인, 유족과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초범
선고형	징역 22년(항소기각)	



[사례6]

범죄사실	동거녀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구덩이에 묻어 유기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 후 정황 좋지 않음, 유족과 미합의
	유리한 요소	반성,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12년(항소기각)	

[사례7]

범죄사실	동생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주방에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를 1회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자와의 관계
	유리한 요소	유족(부모) 선처 호소, 반성, 우발적 범행, 벌금형 전과
선고형	징역 8년(항소기각)	

[사례8]

범죄사실	동거녀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부엌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1회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족 엄벌 호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10년(항소심에서 합의, 파기, 징역 7년)	



[사례9]

범죄사실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계속 연락을 하여 피해자와의 관계가 자신의 가족에게 알려질 것이 염려되자 승용차 안에서 준비한 칼로 수회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계획된 범행
	유리한 요소	자수, 자백, 유족과 합의
선고형	징역 7년	

[사례10]

범죄사실	의치증으로 인하여 처인 피해자와 불화를 겪다가 피해자가 이혼하려고 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족 엄벌 호소, 피해자와의 관계
	유리한 요소	초범, 자수, 반성,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13년(항소기각)	

[사례11]

범죄사실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자 바닥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1회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족과 미합의, 폭력 전과 있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10년(항소기각)	



[사례12]

범죄사실	처인 피해자 A가 평소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던 중 새벽 05:30경 귀가하였을 때 피해자 A, B가 침대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 A를 수회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 B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자 A와의 관계
	유리한 요소	초범, 피해자 B와 합의, 동기 참작 여지
선고형	징역 8년(항소기각)	

[사례13]

범죄사실	수년 동안 남편인 피해자로부터 식칼 등으로 위협받아 오다가 농약을 술에 타서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자와의 관계
	유리한 요소	자수, 자백, 초범, 피해자 형제들이 선처 호소, 피해자 일부 잘못
선고형	징역 3년(항소기각)	

[사례14]

범죄사실	내연녀의 남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서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도구 준비, 유족과 미합의
	유리한 요소	반성
선고형	징역 12년(항소기각)	



[사례15]

범죄사실	동네 후배인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식당으로 들어가 식칼을 가지고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수회 찔러서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족과 미합의, 범행수법 잔인
	유리한 요소	반성, 우발적 범행, 벌금 전과
선고형	징역 15년(항소기각)	

[사례16]

범죄사실	전처인 피해자 A가 이혼소송에 의하여 피고인과 이혼하고 피해자 B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들어가 준비된 과도로 피해자 A를 수회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 B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계획된 범행, 범행수법 잔인
	유리한 요소	자수, 반성, 벌금 전과
선고형	징역 15년(항소기각)	

[사례17]

범죄사실	고향 후배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계획된 범행, 유족과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선고형	징역 14년(항소기각)	



[사례18]

범죄사실	생활고 등으로 신세를 비관하고 있다가 자녀들인 피해자 A, B를 살해하고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수면제 먹인 후 피해자 A의 목을 조르고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 B도 살해하려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수법 잔인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피해자 아버지 등 가족 선처 호소
선고형	징역 3년 및 치료감호(항소기각)	

[사례19]

범죄사실	동거 중이던 피해자와 생활비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부엌칼을 들고 위협하자 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수회 찔러서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족과 미합의, 피해자와의 관계
	유리한 요소	자수, 반성,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13년(항소기각)	

[사례20]

범죄사실	시댁과의 불화, 남편과의 갈등 등으로 정신분열증, 우울증 등을 앓다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녀인 피해자 A, B를 손수건 등으로 목을 졸라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살인 피해자가 2명
	유리한 요소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자백
선고형	징역 3년 및 치료감호(항소기각)	



[사례21]

범죄사실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2회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수법 잔인, 유족과 미합의
	유리한 요소	반성, 초범,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14년(항소기각)	

[사례22]

범죄사실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말다툼을 한 것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칼로 피해자를 1회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족과 미합의, 부인
	유리한 요소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12년(항소기각)	

[사례23]

범죄사실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A와 말다 툼을 벌이다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로 피해자 A를 1회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에게 2주 상해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족과 미합의
	유리한 요소	초범, 우발적 범행,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10년(항소심에서 손해배상금 일부 공탁, 파기, 징역 6년)	



[사례24]

범죄사실	동네 후배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자 가위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유족과 합의, 반성,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5년(항소기각)	

[사례25]

범죄사실	3일 전 알게 되어 성관계까지 갖게 된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침대 밑에 사체를 은닉하고,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절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족과 미합의, 범행 후 정황 좋지 않음
	유리한 요소	반성,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8년	

[사례26]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A가 새로운 남자인 피해자 B를 사귀면서 잘 만나 주지 않자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 B를 수회 찔러서 살해하고, 피해자 A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 수법 잔인, 피해자 B 유가족과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초범, 반성, 피해자 A 선처 호소
선고형	징역 12년	



[사례27]

범죄사실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폭력 행사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칼을 휘두르자 이를 빼앗은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족 엄벌 호소
	유리한 요소	자수, 반성,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10년	

[사례28]

범죄사실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A와 피해자 B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B와 싸움을 벌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고 피해자 A와도 이혼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새벽에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침입하여 준비한 등산용 칼로 피해자들을 수회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계획된 범행, 범행수법 잔인, 알리바이 조작, 유족과 미합의
	유리한 요소	
선고형	무기징역(항소심에서 피해자 A 유족과 합의하였으나 항소기각)	

[사례29]

범죄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과 시의원 선거시 경합을 벌이다 당선되자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미리 준비한 칼로 승용차에 있는 피해자를 수회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 찔러서 피해자를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계획된 범행, 범행수법 잔인, 유족과 미합의
	유리한 요소	
선고형	무기징역	



[사례30]

범죄사실	변제를 독촉하는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제초제를 혼합한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유족과 미합의, 범행 후 정황 좋지 않음, 계획된 범행
	유리한 요소	
선고형	무기징역	

4. 부산지방법원

[사례1]

범죄사실	피해자가 칼로 위협하고 주먹과 발 등으로 계속 폭행하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둔 칼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초범, 유가족과 합의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항소기각)	

[사례2]

범죄사실	딸인 피해자의 술주정과 폭행에 장기간 시달리다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자와의 관계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피고인 연령(79세), 피해자의 일부 잘못
선고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례3]

범죄사실	피해자 A, B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낸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 끝에 주방용 회칼로 피해자 A를 1회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 B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족과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10년(항소기각)	

[사례4]

범죄사실	친구인 피해자가 폭행하자 화가 나서 집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1회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족과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초범,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8년(항소기각)	

[사례5]

범죄사실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딸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목을 졸라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자와의 관계
	유리한 요소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초범, 반성, 남편 선처 호소, 반성
선고형	징역 3년 6월(항소기각)	



[사례6]

범죄사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평소 무시하고 폭행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식칼로 1회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저지름, 피해자와의 관계
	유리한 요소	피해자 어머니 선처 호소,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 자백, 반성
선고형	징역 7년(항소기각)	

[사례7]

범죄사실	처인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식탁에 놓여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약 12회 찔러서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법 잔인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자녀들 선처 호소, 우발적 범행, 피고인 연령(67세)
선고형	징역 7년(항소기각)	

[사례8]

범죄사실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수법 잔인, 유족과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선고형	징역 15년(항소기각)	



[사례9]

범죄사실	처인 피해자가 다단계 판매회사에 투자하였다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수회 때려서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누범기간 중 범죄 저지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측 엄벌 호소
	유리한 요소	반성,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10년(항소기각)	

[사례10]

범죄사실	동거녀인 피해자가 술주정을 부리면서 피고인의 잠을 깨우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족 엄벌 호소, 피해자와의 관계
	유리한 요소	자수, 초범, 반성,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11년(항소기각)	

[사례11]

범죄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방문을 계속 견어차면서 시비를 걸자 화가 나서 방안에 있던 칼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서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수법 잔인, 반성하지 않음, 유족 엄벌 호소
	유리한 요소	자백, 피해자 일부 잘못
선고형	징역 15년(항소기각)	



[사례12]

범죄사실	함께 노숙 생활을 하던 피해자가 폭행을 반복하자 화가 나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족과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선고형	징역 11년(항소심에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 파기, 징역 7년)	

[사례13]

범죄사실	처인 피해자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는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러서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족과 미합의, 피해자와의 관계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벌금 전과
선고형	징역 12년(항소기각)	

[사례14]

범죄사실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얼굴을 얻어맞자 화가 나서 부엌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1회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족과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초범,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11년(항소심 파기, 징역 9년)	



[사례15]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소화기 등으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쳐서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수법 잔인, 유족 엄벌 호소
	유리한 요소	초범, 반성,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10년(항소기각)	

[사례16]

범죄사실	여성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빈 소주병, 칼 등으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쳐서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수법 잔인, 유족과 미합의
	유리한 요소	반성, 우발적 범행, 벌금 전과 1회
선고형	징역 13년(항소기각)	

[사례17]

범죄사실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고 칼을 휘둘러 복부가 가볍게 찔리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실신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창문 밖으로 밀어 떨어뜨려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부인, 유족과 미합의
	유리한 요소	피해자의 잘못
선고형	징역 10년	



[사례18]

범죄사실	남편인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내리쳐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 수법 잔인, 반성 부족, 피해자와의 관계
	유리한 요소	정신질환
선고형	징역 10년	

[사례19]

범죄사실	형인 피해자의 20년간 계속된 폭행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 등을 얻어맞자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1회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자와의 관계
	유리한 요소	반성, 가족들 선처 호소, 피해자의 일부 잘못
선고형	징역 6년	

[사례20]

범죄사실	교제하던 피해자의 변심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어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약 27회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계획된 범행, 범행수법 잔인, 유가족 엄벌 호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초범
선고형	징역 15년	



[사례21]

범죄사실	처인 피해자의 채무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포장용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자와의 관계
	유리한 요소	반성, 아들 선처 호소
선고형	징역 5년	

[사례22]

범죄사실	의치증이 있는 동거남인 피해자로부터 지속적 폭행을 당하다가 피해자가 망치를 휘두르면서 폭행하자 피해자가 사용하던 망치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살해하고, 양쪽 다리 윗부분을 절단하여 사체를 손괴하고 피고인의 집에 사체 은닉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수법 잔인, 유족 엄벌 호소, 범행 후 정황 좋지 않음,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등 반성 부족
	유리한 요소	자수, 자백, 초범, 피해자의 일부 잘못
선고형	징역 12년	

[사례23]

범죄사실	피해자 A가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화가 나서 피해자 A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 A를 칼로 살해하고 숨어 있던 피해자 A의 처인 피해자 B도 칼로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살인 피해자 2명, 범행수법 잔인, 유족과 미합의, 계획된 범행
	유리한 요소	자수, 자백, 반성, 피해자 A의 일부 잘못
선고형	무기징역(항소심 파기, 징역 20년)	



5. 광주지방법원

[사례1]

범죄사실	처남택인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자와의 관계
	유리한 요소	자수, 반성, 유족과 합의,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7년(항소기각)	

[사례2]

범죄사실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고 욕설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로 수회 찌르고, 피해자가 부엌칼을 빼앗자 쇠지팡이로 수회 때려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수법 잔인, 누범기간 중 범행, 유족과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선고형	징역 12년(항소기각)	

[사례3]

범죄사실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등의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신체 부위를 절단하여 사체를 손괴한 후 사체를 강물에 던져 은닉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수법 잔인, 계획된 범행, 범행 후 정황 좋지 않음, 알리바이 조작, 유족과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피해자의 일부 잘못
선고형	징역 20년(항소기각)	



[사례4]

범죄사실	전처인 피해자 A가 혼인 중 피해자 B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이유로 이혼한 후 피해자들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공기총으로 피해자 B를 살해하고 피해자 A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수법 잔인
	유리한 요소	자수, 반성, 초범, 피해자 A 선처 호소, 피해자 B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 일부 지급, 피해자들의 일부 잘못
선고형	징역 10년(항소심에서 피해자 B 유족과 합의, 파기, 징역 6년)	

[사례5]

범죄사실	동거녀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전처와 사이에 태어난 유아인 피해자를 들어 벽에 던져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자와의 관계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피해자 어머니 선처 호소,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4년(항소심에서 상해치사로 공소장 변경, 파기, 징역 2년 6월)	

[사례6]

범죄사실	동거녀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칼을 들고 와 같이 죽자고 하자 칼을 빼앗아 피해자를 1회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족과 미합의
	유리한 요소	반성, 피해자의 일부 잘못, 벌금 전과
선고형	징역 10년(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 파기, 징역 7년)	



[사례7]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자고 있는 피해자를 돌로 2회 내리치고 쇠파스로 성기를 절단하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수법 잔인, 유족과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초범, 불안정한 정신상태
선고형	징역 15년(항소심 파기, 징역 12년)	

[사례8]

범죄사실	20년 이상 병수발을 하였던 처인 피해자의 상태를 비관하여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청테이프로 잠든 피해자의 코를 막아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계획된 범행, 피해자와의 관계
	유리한 요소	초범, 자백, 반성, 동기 참작, 피고인 연령(64세)
선고형	징역 3년(항소기각)	

[사례9]

범죄사실	동거녀인 피해자 A가 욕설을 하고 도망가자 식칼을 들고 쫓아가 피해자를 약 20회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 A의 딸인 피해자 B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수법 잔인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피해자 A의 유족과 합의
선고형	징역 15년(항소기각)	



[사례10]

범죄사실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 아령 등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살해하고, 범행 은폐 위해 사체에 불을 놓아 손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 후 정황 좋지 않음, 유족과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선고형	징역 15년(항소기각)	

[사례11]

범죄사실	처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조롱 섞인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주변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약 17회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수법 잔인
	유리한 요소	초범, 자백, 반성, 유족과 합의,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8년(항소심 파기, 징역 5년)	

[사례12]

범죄사실	동거녀인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구덩이에 피해자를 묻어 사체 유기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족과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수, 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15년	



[사례13]

범죄사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화가 나서 주변에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족과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12년	

[사례14]

범죄사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가 만나 주지 않자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준비한 칼로 피해자 A를 수회 찔러 살해하고, 경찰관 추격을 피하여 도주하던 중 시민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자 칼로 피해자 B를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수법 잔인, 살인 피해자 2명, 반성 부족, 유가족 엄벌 요구, 계획된 범행
	유리한 요소	벌금 이외 중한 전과 없음, 정신질환
선고형	무기징역(향소심 파기, 징역 20년)	

[사례15]

범죄사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칼로 여자친구의 어머니인 피해자 A와 여동생인 피해자 B를 수회 찔러 살해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 수법 잔인, 유족과 미합의, 계획된 범행, 살인 피해자가 2명
	유리한 요소	초범, 자수, 반성, 손해배상금 일부 공탁
선고형	무기징역(향소기각)	



별지2

강간죄 양형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1]

범죄사실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26세)를 미행하다가 주차장으로 안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1회 강간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출소 후 3개월만에 범행(집행유예 결격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취하지 않음
	유리한 요소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 대체로 자백, 반성
선고형	징역 2년(항소기각)	

[사례2]

범죄 사실	평소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임신을 하고 몸이 아파 성관계를 거부하는데도 1회 강간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 폭행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임신 중인 피해자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유리한 요소	강간 범행 후에도 피해자와 성관계 갖는 등 교제 계속, 초범, 손해배상금 일부 공탁
선고형	징역 1년 6월(항소심 파기, 집행유예)	



[사례3]

범죄사실	만취한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1회 강간하고, 이틀 후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2회 강간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부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취하지 않음
	유리한 요소	초범
선고형	징역 2년 6월(항소기각)	

[사례4]

범죄사실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골목 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1회 강간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취하지 않음
	유리한 요소	자백, 초범, 반성
선고형	징역 2년(항소심에서 합의, 파기, 집행유예)	

[사례5]

범죄사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1회 강간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누범기간 중 범행,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실형 전과, 부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취하지 않음
	유리한 요소	부양가족 있음
선고형	징역 3년(항소기각)	



[사례6]

범죄사실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중 직업소개를 의뢰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를 지방에 취업시켜 주기 위하여 함께 버스를 타려고 하다가 피해자를 부근 여인숙으로 유인하여 1회 강간하고, 10일 정도 후 서울로 올라 온 피해자의 숙소를 찾아가 1회 강간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자가 정신장애 등으로 여성보호센터를 전전하는 등 불안정한 생활, 피해 회복 위한 조치 취하지 않음, 피해자 임신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초범
선고형	징역 2년	

2. 대구지방법원

[사례1]

범죄 사실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의 양 손 등을 붙잡아 항거불능하게 한 후 1회 강간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초범, 손해배상금 일부 공탁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례2]

범죄사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방으로 들어 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항거불능하게 한 후 1회 강간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무고하였다고 주장,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취하지 않음
	유리한 요소	
선고형	징역 1년 6월(항소심에서 자백하였으나 항소기각)	



[사례3]

범죄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1회 강간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취하지 않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선고형	징역 1년 6월(항소심에서 합의, 파기, 집행유예)	

3. 부산지방법원

[사례1]

범죄사실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 투숙하여 계속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1회 강간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취하지 않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선고형	징역 1년 6월(항소심에서 손해배상금 일부 공탁, 파기, 집행유예)	

[사례2]

범죄사실	내연녀의 딸로서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1회 강간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부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취하지 않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좋지 않음
	유리한 요소	
선고형	징역 3년	



별지3

강간치상죄 양형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1]

범죄 사실	새벽에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 얼굴 등 을 때리면서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2주 치료 요하는 안면 부 좌상 입게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계획된 범행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상해 정도 중 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2]

범죄사실	피고인 운영하는 학원 교사인 피해자에게 학원 이야기를 하자 면서 모텔로 유인한 후 얼굴을 때리면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계획된 범행
	유리한 요소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3]

범죄사실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입을 틀어막고 몸을 위에서 누르면서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4]

범죄사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모텔로 유인한 후 목을 조르고 입을 막으면서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초범, 합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5]

범죄사실	피고인 운영의 식당 화장실에서 종업원이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비틀면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6]

범죄사실	새벽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건물 내 화장실 앞으로 끌고 가 얼굴을 때리면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좌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부인
	유리한 요소	초범, 합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7]

범죄사실	유홍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얼굴을 때리면서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좌상 등을 입게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8]

범죄사실	새벽에 보행 중인 피해자를 부근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가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슬관절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놓고 간 휴대폰 등을 절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 후 정황 좋지 않음
	유리한 요소	초범, 합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9]

범죄사실	피고인 경영의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열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례10]

범죄사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이종 실형 전과 있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11]

범죄사실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자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면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반성, 합의, 벌금 전과 1회,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12]

범죄사실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동승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초범, 합의, 반성, 건강 상태 좋지 않음,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13]

범죄사실	심야에 보행 중인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화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목을 비틀면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치료 일수 불상의 안부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손해배상금 일부 공탁,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14]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나이트클럽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반성, 합의, 벌금 전과 2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15]

범죄사실	스키장 콘도에서 피해자를 사람이 없는 복도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반성, 합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16]

범죄사실	술에 취한 피고인을 모텔까지 데려다 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초범, 반성, 합의,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17]

범죄사실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온 피해자의 복부 등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복부타박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반성, 합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동종 전과 없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례18]

범죄사실	부하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 등을 누르면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초범, 손해배상금 일부 공탁, 고소 취소, 자백, 반성,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19]

범죄사실	피고인으로부터 국악을 교습받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열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자가 청소년
	유리한 요소	초범, 반성, 합의
선고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례20]

범죄사실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면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치료 일수 불상의 다발성타박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동종 전과 없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21]

범죄사실	피해자 경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 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취하지 않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항소심에서 합의, 파기, 집행유예)	

[사례22]

범죄사실	피고인의 집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와 이야기하다가 목을 조르면서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취하지 않음
	유리한 요소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 벌금 전과 1회,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항소심에서 합의, 파기, 집행유예)	

[사례23]

범죄사실	피고인의 형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얼굴 등을 때리면 서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열상 등 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취하지 않음
	유리한 요소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
선고형	징역 3년 6월(항소기각)	



[사례24]

범죄사실	피고인의 집에서化粧품을 팔러 온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누르면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좌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강도상해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범행
	유리한 요소	반성, 합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5년(항소기각)	

[사례25]

범죄사실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핸드폰 등을 보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여관으로 유인하여 뺨을 때리면서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누범기간 중 범행, 범행 후 정황 좋지 않음, 피해 회복 위한 조치 취하지 않음, 부인
	유리한 요소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반성
선고형	징역 4년(항소심 파기, 징역 3년)	

[사례26]

범죄사실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등에 업고 모텔에 투숙하여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열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미합의
	유리한 요소	반성, 손해배상금 일부 공탁, 초범
선고형	징역 2년 6월(항소심에서 합의, 파기, 집행유예)	



[사례27]

범죄사실	피고인 경영 회사에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와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먹게 한 후 피고인의 사무실로 데리고 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열상 등을 입게 하고, 이틀 후 피해자를 다시 만나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울반응을 수반한 적응장애의 상해를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증거 인멸 시도, 반성의 정도 부족, 상해 정도 경하지 않음
	유리한 요소	합의, 피고인 건강(당뇨 등)
선고형	징역 3년(항소심 파기, 집행유예)	

[사례28]

범죄사실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황반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 범행, 상해 정도가 경하지 않음
	유리한 요소	합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항소기각)	

[사례29]

범죄사실	피해자의 노래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면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폭력 전과 다수, 미합의, 피해자 엄벌 호소
	유리한 요소	자수, 반성,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3년	



2. 대전지방법원

[사례1]

범죄사실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집에 데려주겠다면서 승용차에 탑승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입과 목을 누르면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주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동종 전과 없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2]

범죄사실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호텔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면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상해 정도 경하지 않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손해배상금 일부 공탁, 동종 전과 없음
선고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례3]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가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면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례4]

범죄사실	주점에서 그 곳 사장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출혈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초범, 반성, 합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5]

범죄사실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처에 대한 채무변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찾아 온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상해 정도 경하지 않음
	유리한 요소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6]

범죄사실	가출한 아내의 행방을 알기 위하여 아내의 친구인 피해자를 승용차에 탑승시킨 것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부 피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용소	반성, 합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례7]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새벽에 보행 중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염좌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례8]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심야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밟으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례9]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새벽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바닥에 넘어뜨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좌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례10]

범죄사실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 열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정신지체 장애인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11]

범죄사실	피고인 운영 단란주점의 직원들과 회식하던 중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자 집에 데려주겠다고 하여 모텔로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면서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손목 부분의 좌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부인, 피해자를 위증으로 고소, 미합의
	유리한 요소	동종 전과 없음,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3년(항소기각)	

[사례12]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심야에 승용차로 혼자 귀가하면서 주차하려는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밀고 얼굴 등을 때리면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 좌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강간 범행 미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3년(항소심 파기, 징역 2년)	



[사례13]

범죄사실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면서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강도상해죄로 복역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 동종 전과 있음, 미합의
	유리한 요소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8년(항소심 파기, 무죄)	

[사례14]

범죄사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소변을 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르게 된 피해자를 넘어 뜨려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미합의
	유리한 요소	우발적 범행,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3년(항소심 심신미약 인정, 파기, 징역 1년 6월)	

[사례15]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다 잠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면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갑부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집행유예 결격자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동종 전과 없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1년 6월(항소기각)	



[사례16]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주다가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당기면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누범기간 중 범행(집행유예 결격자)
	유리한 요소	반성, 합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1년 3월	

[사례17]

범죄사실	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와 노래를 부르면서 놀던 중 피해자를 넘어 뜨려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개 절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음, 강간 범행 미수
선고형	징역 2년 6월(항소기각)	

[사례18]

범죄사실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노래방으로 가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면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 미합의, 반성하지 않음
	유리한 요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강간 범행은 미수
선고형	징역 3년	



3. 대구지방법원

[사례1]

범죄사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등을 때리면서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동종 전과 없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2]

범죄사실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팔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누르면서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례3]

범죄사실	가게에 갔다가 혼자 있는 피해자의 배를 다리로 누르면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으며, 같은 날 무면허 운전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자 연령(14세)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동종 전과 없음, 강간 범행 미수
선고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례4]

범죄사실	가요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상순 찰과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강간 범행 미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5]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마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들이받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좌안 결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강간 범행 미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6]

범죄사실	피고인 운영의 이용소에서 면도사로 일하는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이용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례7]

범죄사실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식당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면서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8]

범죄사실	저녁에 보행 중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강간 행위 미수,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9]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새벽에 귀가 중인 피해자를 따라가 골목 안 바닥에 넘어 뜨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좌상 등을 입게 하였으며, 같은 날 음주운전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강간 범행 미수,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례10]

범죄사실	모텔에서 유흥주점接客원인 피해자에게 화대를 주고 1회 성교한 후 다시 성교를 요구하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가슴부분 등을 때리면서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상해 정도 중합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범행 직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 가짐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11]

범죄사실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열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자 연령(15세)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피고인 연령(19세)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례12]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공원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뺨을 때리면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강간 범행은 미수, 동종 전과 없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1년 6월(향소기각)	



[사례13]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주점을 경영하는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무릎 등 타박상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동종 범죄로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강간 범행 미수,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4년(항소심 파기, 징역 3년)	

[사례14]

범죄사실	피해자를 상가 옥상으로 유인한 후 강제로 바닥에 눕혀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열상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미합의, 피해자 연령(14세), 범행 후 지속적으로 성관계 요구하는 등 정황 좋지 않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초범
선고형	징역 3년 6월(항소심 파기, 징역 2년 6월)	

4. 부산지방법원

[사례1]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모텔로 데려가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항문열상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례2]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새벽에 보행 중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부좌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강간 범행 미수,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례3]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 등과 회식을 한 후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려고 하다가 비어 있는 노래연습장 내 방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강간 범행 미수,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례4]

범죄사실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화물차 화물칸에 넘어 뜨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초범, 손해배상금 일부 공탁, 강간 범행 미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5]

범죄사실	피해자 경영의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 뜨려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부 좌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6]

범죄사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눕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강간 범행 미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7]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DVD방에서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열상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강간 범행 미수,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례8]

범죄사실	모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면서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9]

범죄사실	피고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손목을 꺾으면서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10]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강간 범행 미수,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례11]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면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강간 범행 미수,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례12]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공영주차장 길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등을 누르면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양측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강간 범행 미수,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피고인 연령(67세)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례13]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단둘이 남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인대염좌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강간 범행 미수,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례14]

범죄사실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강제로 택시에 태워 이동하던 중 여관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완부좌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자 연령(17세)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피고인 연령(19세),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례15]

범죄사실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놀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열상 등을 입게 함 여관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울증 등 상해를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자 연령(15세), 상해 정도 경하지 않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16]

범죄사실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면서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17]

범죄사실	심야에 보행 중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동종 실행 전과 있음
	유리한 요소	반성, 합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례18]

범죄 사실	피해자의 집에서 전등을 수리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양측 찰과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강간 범행 미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19]

범죄 사실	피고인 운영 주점의 정수기를 점검하러 온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3년 6월(항소심에서 합의, 파기, 징역 2년 6월)	



[사례20]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모텔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다가 단들이 남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면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심부열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누범 기간 중 범행(집행유예 결격자),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음, 강간 범행 미수,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1년 6월(항소기각)	

[사례21]

범죄사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위에서 누르면서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 열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미합의
	유리한 요소	반성, 소년보호처분 외 전과 없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항소기각)	

[사례22]

범죄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온 피해자를 내실로 밀어 넘어뜨린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완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부인, 반성하지 않음, 미합의
	유리한 요소	강간 범행 미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피고인 연령(69세), 벌금 전과
선고형	징역 2년 6월(항소심에서 합의, 파기, 집행유예)	



[사례23]

범죄사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미합의
	유리한 요소	초범, 반성, 강간 범행 미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항소심에서 합의, 파기, 집행유예)	

[사례24]

범죄사실	야간에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옥상으로 데려가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음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 촬영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자 연령(12세), 미합의, 범행 수법 나쁨
	유리한 요소	반성, 초범, 피고인 연령(20세)
선고형	징역 4년(항소심에서 합의, 파기, 집행유예)	

[사례25]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함께 여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때려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옆구리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부인, 미합의, 범행 후 정황 좋지 않음
	유리한 요소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의 일부 잘못,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1년 3월(항소심에서 자백하며 합의, 파기, 집행유예)	



[사례26]

범죄사실	출소 후 도움을 주었던 피해자를 빈 집으로 데려가 바닥에 넘어 뜨려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열상 등을 입게 함. 그 후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2회에 걸쳐 추가로 강간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 반복, 누범기간 중 범행(집행유예 결정자), 동종 실형 전과 있음,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선고형	징역 5년(항소기각)	

5. 광주지방법원

[사례1]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차 배달을 온 피해자를 넘어 뜨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강간 범행 미수,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례2]

범죄사실	새벽에 보행 중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로 끌고 간 후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등을 빼앗아 감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3]

범죄사실	피해자를 버스 정류장에 데려다 주기로 하여 자신의 화물차에 태운 후 자신의 집 현관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타박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강간 범행 미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례4]

범죄사실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몸을 비틀면서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5]

범죄사실	피고인이 세들어 사는 집의 주인인 피해자를 넘어 뜨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타박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강간 범행 미수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6]

범죄사실	옆집에 사는 어린이인 피해자의 몸을 비틀며 1회 강간하여 이로 인하여 치료 일수 불상의 처녀막열상을 입게 하고, 그 후 동일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자 연령(8세), 범행의 반복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피고인 연령(20세), 피고인의 건강상태(정신지체 2급 장애인)
선고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례7]

범죄사실	피해자 등과 여행을 하던 중 피해자를 야산으로 유인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열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자 연령(17세)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례8]

범죄사실	피해자의 집에 돈을 빌리러 갔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 연령(68세),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례9]

범죄사실	심야에 보행 중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자 연령(16세)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강간 범행 미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례10]

범죄사실	새벽에 보행 중인 피해자를 건물 안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염좌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강간 범행 미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례11]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 운영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음부찰과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동종 범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범행(집행유예 결정자),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3년(향소기각)	



[사례12]

범죄사실	회사 동료의 딸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 주겠다고 하여 화물차에 태우고 가던 중 차를 주차하고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음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집행유예 결격자), 피해자와의 관계 및 연령(13세)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벌금 전과
선고형	징역 5년(항소심 파기, 징역 3년)	

[사례13]

범죄사실	심야에 보행 중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근처 밭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슬관절부 심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해자 연령(16세), 미합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강간 범행 미수
선고형	징역 3년(항소기각)	

[사례14]

범죄사실	피고인 운영의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를 방으로 유인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지 찰과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미합의, 부인
	유리한 요소	동종 전과 없음,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강간 범행 미수
선고형	징역 3년(항소심에서 자백하고 합의, 파기, 집행유예)	



[사례15]

범죄사실	모텔에서 자신의 방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목을 조이면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강간 범행 미수, 손해배상금 일부 공탁
선고형	징역 2년 6월(항소기각)	

[사례16]

범죄사실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넘어 뜨려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미합의, 피해자 연령(17세)
	유리한 요소	반성, 초범, 손해배상금 일부 공탁,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6월(항소심 합의, 파기, 집행유예)	



별지4

강도죄 양형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1]

범죄사실	심야에 보행 중인 피해자(여성)의 손목을 잡아끌고 담벼락에 밀어 붙인 후 시가 33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강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피해 정도 크지 않음, 동종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2]

범죄사실	야간에 보행 중인 피해자(여성)의 입을 막고 발로 걷어찬 후 현금,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강취하고, 주차된 차량 안에서 현금 22만 원과 미화 12 달러를 절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우발적 범행, 피해 정도 크지 않음, 동종 전과 없음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3]

범죄사실	통화 중인 피해자(남성)의 얼굴을 발로 때려 정신을 잃게 한 후 휴대폰 1개를 강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초범, 가환부로 재산상 피해 회복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례4]

범죄사실	심야에 보행 중인 피해자(여성)의 목을 뒤에서 잡고 넘어뜨린 후 현금 50,000원, 휴대폰 1개 등을 강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피해 정도 크지 않음,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례5]

범죄사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남성)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물건을 사기 위하여 가게 방향으로 가는 순간 뒤에서 오른팔을 잡아 꺾은 후 현금 30만 원,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강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부인
	유리한 요소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음,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례6]

범죄사실	아침에 보행 중인 피해자(여성)의 얼굴 등을 때린 후 현금 10,000원, 휴대폰,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강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재산상 피해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례7]

범죄사실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를 꺼내어 종업원을 위협한 후 현금 424,000원을 강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계획된 범행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범행 당시 3일 정도 식사 못함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8]

범죄사실	피씨방에서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화장실용 집게가 칼인 것처럼 위협한 후 카운터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강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누범기간 중 범행(집행유예 결격자),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3년	

[사례9]

범죄사실	야간에 보행 중인 피해자(여성)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린 후 여성용 손가방을 강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상습절도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 범행(집행유예 결격자), 부인, 반성하지 않음
	유리한 요소	피해 정도 크지 않고 가환부로 재산상 피해 회복
선고형	징역 3년(향소기각)	



2. 대전지방법원

[사례1]

범죄사실	새벽에 귀가하는 피해자 A(여성)를 뒤따라가 한 손으로 입을 막고 위협하여 핸드폰 1개 및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방 강취하고, 같은 날 새벽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B(여성)로부터 현금 40만 원 등을 강취하고, 그후로도 같은 수법으로 혼자 귀가하는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강도의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강간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범행(집행유예 결정자), 범행 반복,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선고형	징역 4년(항소심에서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고 공탁, 파기, 징역 3년 6월)	

[사례2]

범죄사실	새벽에 피해자 A(남성)이 술에 취해 앉아 있자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후 현금 43,000원을 강취하고, 오전에 보행 중인 피해자 B(여성)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가슴 등을 때린 후 시가 불상의 가방을 강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상습절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범행(집행유예 결정자), 범행 반복, 미합의,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수법 잔인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3년 6월	



3. 대구지방법원

[사례1]

범죄사실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여성)을 뒤따라가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27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강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례2]

범죄사실	야간에 식당에서 청소 중인 피해자(여성)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현금 7만 원과 휴대폰 1개를 강취하고, 계속해서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 유리를 보도블록으로 깨뜨림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례3]

범죄사실	피해자 A(남성)와 말다툼 하던 중 떡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자동차 열쇠를 빼앗아 피해자 소유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 B 소유의 1,150만 원 상당의 기계를 절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피해물품 모두 가환부,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례4]

범죄사실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A(남성)을 뒤따라가 주먹으로 얼굴과 배 등을 때려 정신을 잃게 한 후 현금 28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 B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 B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바지에서 현금 15만 원을 절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집행유예 결정자), 강도범행 부인
	유리한 요소	우발적 범행,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1년 6월(항소심에서 심신미약 인정, 파기, 징역 10월)	

4. 부산지방법원

[사례1]

범죄사실	심야에 보행 중인 피해자(여성)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현금 17,000원, 휴대폰 1개 등을 강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례2]

범죄사실	새벽에 혼자 정차된 승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여성)을 발견하고 뒷좌석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른 후 현금 220만 원, 휴대폰 1개 등을 강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3]

범죄사실	새벽에 보행 중인 피해자(여성)를 뒤따라가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후 현금 41,000원이 들어 있는 손지갑 1개를 강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례4]

범죄사실	야간에 술에 취한 피해자(남성)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린 후 현금 46만 원 등이 든 지갑 1개를 강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이중 범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범행(집행유예 결격자)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1년 6월	

5. 광주지방법원

[사례1]

범죄사실	여관에서 커피를 배달하러 온 피해자(여성)의 손목을 잡고 바닥에 눕혀 테이프로 손발을 묶은 후 265,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강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계획된 범행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례2]

범죄사실	자신의 주거지에 커피를 배달하러 온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찬 후 현금 7만 원을 강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우발적 범행,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례3]

범죄사실	새벽에 보행 중인 피해자(여성)에게 다가가 발로 어깨를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발로 밟은 후 25만 원 상당의 의류 등이 들어 있는 쇼핑백 1개를 강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우발적 범행,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4]

범죄사실	야간에 보행 중인 피해자(남성)를 뒤따라가 목 뒷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후 현금 81만 원 상당 등이 들어 있는 양복상의 1개를 강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5]

범죄사실	새벽에 보행 중인 피해자(여성)을 뒤따라가 목을 조르면서 넘어뜨린 후 현금 94,000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강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초범, 피해품 가환부, 우발적 범행,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별지5

강도상해죄 양형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1]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새벽에 술에 취해 땅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 A(남성)에게 다가가 현금 25,000원 등을 절취한 후 가려고 하다 피해자 B가 붙잡자 피해자 B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반성, 합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음, 절도 등으로 벌금 전과 1회, 우발적 범행,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례2]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베란다로 침입하여 현금 22만 원을 절취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발로 안방 문을 걷어차 피해자의 발가락이 쪼개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부 좌상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피해 정도 크지 않음, 초범, 우발적 범행,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례3]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새벽에 편의점에 혼자 근무 중인 피해자(여성)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수법 위험성 높음, 이중 집행유예 전과 있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강도 범행 미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례4]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새벽에 보행 중인 피해자(여성)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린 후 현금 4,417,000원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반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우발적 범행,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례5]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심야에 혼자 보행 중인 피해자(여성)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린 후 쇼핑백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우발적 범행,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강도 범행 미수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례6]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오후에 보행 중인 피해자(여성)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린 후 현금 63,100원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특수강도미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집행유예 결정자)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간질 장애 3급 장애인, 치료비 마련 위해 범행,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항소기각)	

[사례7]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새벽에 편의점에 혼자 근무 중인 피해자(남성)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현금 45만 원 등을 강취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귀부분 타박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공갈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집행유예 결정자)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편의점 주인 처벌 불원,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음, 우발적 범행,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2년(항소기각)	

[사례8]

범죄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그 곳에 있는 작업용 철집게로 피해자의 뒷머리 등을 때린 후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순금 250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절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수법 위험성 높음, 상해 정도 중함, 미합의,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집행유예 결정자)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강도 범행 미수
선고형	징역 4년(항소심에서 손해배상금 일부 공탁, 파기, 징역 3년 6월)	



[사례9]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 경영의 매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식품을 훔쳐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머리로 코 부분을 들이받고 넘어 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두부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범행(집행유예 결격자)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음, 우발적 범행,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2년	

[사례10]

범죄사실	새벽에 놀이터 정자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남성)에게 다가가 반지갑을 빼내다가 발각되자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가슴 등을 걷어차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상습절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범행(집행유예 결격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유리한 요소	우발적 범행,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3년 6월(항소기각)	

[사례11]

범죄사실	새벽에 피해자(여성)의 집에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4,809,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나오다가 발각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등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범행수법 위험성 높음
	유리한 요소	반성, 우발적 범행,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3년 6월(항소기각)	



[사례12]

범죄사실	피해자 A(여성)이 경영하는 의류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현금 14만 원 등을 강취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고,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B(여성)로부터 20만 원 상당을 강취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 수법 대담함, 죄질이 나쁨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피해자 A와 합의, 초범
선고형	징역 3년 6월(항소기각)	

[사례13]

범죄사실	피해자 A(남성)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를 들이대면서 협박하고 전선으로 손과 발을 묶은 후 767,000원 상당을 강취하고, 도망하던 중 피해자 B, C의 얼굴 등을 과도로 그어 각 치료일수 불상의 자창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특수강도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범행(집행유예 결격자), 계획된 범행, 범행 수법 위험성 높음,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7년(항소기각)	

[사례14]

범죄사실	과도를 소지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혼자 집에 들어가는 피해자(여성)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린 후 현금 623,000원, 휴대폰 등을 강취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집행유예 결격자), 범행수법의 위험성 높음
	유리한 요소	반성, 합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3년 6월(항소기각)	



[사례15]

범죄사실	갑과 공모하여 갑은 식당 주인인 피해자 A를 식당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식당으로 들어가 현금 97만 원을 훔쳐 도망가다가 피해자 B에게 붙잡히자 피해자 B의 손가락을 꺾어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견열 골절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상습절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범행(집행유예결격자), 범행수법의 위험성 높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피해자 B와 합의, 피고인 연령(62세)
선고형	징역 4년	

[사례16]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편의점으로 들어가 혼자 근무 중인 종업원인 피해자(남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86,4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나가다가 피해자가 붙잡자 피해자의 팔을 물고 맥주캔을 얼굴에 던져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좌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이중 범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범행(집행유예결격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특수강도죄로 실행 선고받은 전과 있음
	유리한 요소	합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2. 대전지방법원

[사례1]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야간에 귀가하는 피해자(여성)를 뒤따라가 입을 막고 얼굴 등을 때리면서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측절치의 탈구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계획된 범행(장갑과 마스크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강도 범행 미수, 초범,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례2]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새벽에 열린 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여성)의 방으로 들어가 현금 18,000원을 절취하였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붙잡으려고 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 A의 배 부분을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자상 등의 상해를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수법의 위험성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3]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새벽에 보행 중인 피해자들(여성)을 머리카락을 붙잡고 얼굴 등을 때려 가방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부 좌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강도 범행 미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4]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가장하여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피해자(남성)를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열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수법의 위험성 높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강도 범행 미수,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례5]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열려진 문을 통하여 피해자(여성)의 집으로 들어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는 과도로 위협하면서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지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강도범행 미수,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례6]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새벽에 보행 중인 피해자(여성)를 뒤따라가 목을 감싸고 넘어뜨린 후 현금 26,000원을 강취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피해 정도 경미함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례7]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비디오방 종업원이 피해자(여성)의 어리를 때리고 넘어뜨린 후 현금 10만 원을 강취하고,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좌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례8]

범죄사실	공소의 A와 합동하여, 새벽에 피해자(여성)가 복권방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소의 A는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과도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계획된 범행, 상해 정도 중합, 특수절도, 강도상해죄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유리한 요소	합의, 강도 범행 미수
선고형	징역 3년 6월(항소기각)	



[사례9]

범죄사실	새벽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여성)가 경영하는 레스토랑에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칼로 위협하고, 손과 발을 묶어 현금 53만 원 등을 강취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신건 손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계획된 범행, 범행수법의 위험성 높음, 미합의
	유리한 요소	동종 전과 없음
선고형	징역 5년(항소기각)	

[사례10]

범죄사실	오락실에서 돈을 잃은 후 피해자(남성)가 오락실에서 받은 상품권으로 환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현금 23만 원을 강취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찰과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손해배상금 일부 공탁, 동종 전과 없음,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3년 6월(항소심 파기, 집행유예)	

[사례11]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여성)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붙잡으며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개방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절도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범행(집행유예 결정자), 상해 정도 경하지 않음, 미합의
	유리한 요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4년(항소기각)	



[사례12]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가 경영하는 슈퍼마켓에서, 미리 준비한 돌맹이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친 후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수법의 위험성 높음, 절도 또는 상습절도 범행으로 실행 전과 있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2년 6월(향소기각)	

3. 대구지방법원

[사례1]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피해자(남성) 소유 차량을 운전하고 가려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배요부 염좌상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례2]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새벽에 보행 중인 피해자(여성)의 목을 조르고 눈 주위를 세게 눌러 현금 21,000원을 강취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례3]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야간에 보행 중인 피해자(여성)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현금 152,000원 등을 강취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4]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야간에 귀가 중인 피해자(여성)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밟은 후 현금 13만 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강취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례5]

범죄사실	피해자 A(여성) 경영의 식당에서 5,5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후 소지하고 있던 몽둥이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리고 도주하여 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완부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B 경영의 의상실에서 약 6만 원 상당의 의류 절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수, 자백, 반성, 합의, 초범, 피해 정도 경미함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례6]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주차된 승용차에 돌맹이를 던져 조수석 사물함을 열어보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어깨 부분을 수회 때리고 넘어 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수부좌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례7]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여성)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과도로 위협하고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8]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오후에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여성)에게 미리 준비한 과도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서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손을 베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열상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계획된 범행, 행위 위험성 높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례9]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오후에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여성)에게 미리 준비한 과도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서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손을 베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열상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계획된 범행, 행위 위험성 높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례10]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오전에 열린 문을 통하여 피해자(여성)의 집으로 들어가 준비한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한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계획된 범행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강도범행 미수,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례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새벽에 술에 취한 피해자(남성)에게 접근하여 주먹과 발로 얼굴, 배를 수회 때린 후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경찰관에게 붙잡혀 미수에 그치고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수법 위험성 높음, 미합의, 상해 정도 경하지 않음
	유리한 요소	반성, 강도범행 미수
선고형	각 징역 3년 6월(항소기각)	

[사례12]

범죄사실	새벽에 보행 중인 피해자(여성)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어깨를 때린 후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전완부타박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강도 범행 미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3년 6월(항소심 파기, 집행유예)	

[사례13]

범죄사실	새벽에 퇴근하는 피해자(여성)를 미리 준비한 빗자루 막대로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린 후 현금 50만 원과 신용카드 2장 등을 강취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계획된 범행, 범행수법의 위험성 높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피해품 가환부
선고형	징역 3년 6월(항소심에서 합의되었으나 항소기각)	



[사례14]

범죄사실	여관에서 피해자(여성)와 성관계를 갖던 중 피해자를 섬으로 팔아 넘기겠다고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때린 후 현금 300만 원을 강취하고,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염좌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특수강도로 복역하는 등 동종 전과 있음,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선고형	징역 3년 6월(항소기각)	

[사례15]

범죄사실	새벽에 노래방으로 들어가 화투를 하고 있는 피해자들(여성)의 머리 등을 때리고 현금 38만 원과 귀금속 등을 강취하고,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절도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범행(집행유예 결정자),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4년	

[사례16]

범죄사실	피해자(남성) 운전의 택시 안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후 현금 209,9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택시를 강취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열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계획된 범행, 행위 위험성 높음, 특수강도죄 전과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선고형	징역 2년 6월(항소심에서 사건 병합, 파기)	



[사례17]

범죄사실	1급 지체장애자인 피해자(남성)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목 등을 지지고 목을 졸라 현금 14,000원과 1,05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강취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집행유예 결정자), 계획된 범행, 범행수법의 위험성 높음, 미합의
	유리한 요소	
선고형	징역 3년 6월(항소기각)	

[사례18]

범죄사실	야간에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여성)의 집 방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나오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자 주먹으로 얼굴, 어깨를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염좌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계획된 범행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선고형	징역 3년 6월(항소심 파기, 집행유예)	

[사례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오락실 업주이자 부부인 피해자 A, B를 지하계단 밑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미리 준비한 과도로 위협하고, 얼굴, 배 등을 때린 후 합계 5,309만 원 상당의 현금과 자동차를 강취하고, 피해자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함
------	---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동종 범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범행(집행유예 결정자), 계획된 범행, 범행수법의 위험성 높음, 피해 정도가 경하지 않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선고형	각 징역 7년	

4. 부산지방법원

[사례1]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야간에 귀가 중인 피해자 A(여성)를 뒤따라가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찬 후 18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강취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B(여성)으로부터 11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강취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2]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녁 무렵 귀가 중인 피해자(여성)를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부 열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수법의 위험성 높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강도 범행 미수,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3]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새벽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의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몰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구순 부 좌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피해자 처벌 불원,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례4]

범죄사실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새벽에 보행 중인 피해자 A(여성)의 주머니에서 현금 208,000원을 절취하여 도망가다가 피해자 B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초범,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음,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례5]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남성)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부근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친 후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찰과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수법의 위험성 높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례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와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을 때린 후 시가 1,30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강취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피고인들 연령(각 19세)
선고형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례7]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새벽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여성)의 집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례8]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새벽에 보행 중인 피해자(남성)를 발견하고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당구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현금 6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강취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례9]

범죄사실	피해자 운영의 의류점 지하창고에 침입하여 5만 원 상당의 의류를 훔쳐 나오다 발각되자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수, 자백, 반성, 합의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례10]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여성)를 골목 안으로 데리고 가 머리와 뺨을 때린 후 현금 90,000원을 강취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례11]

범죄사실	공소외인들과 공모하여 저녁 무렵 혼자 지나가는 피해자(14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다른 공소외인들인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린 후 18만 원 상당의 휴대폰과 시계를 강취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가담 정도 경미함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례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새벽에 혼자 보행 중인 피해자(남성)에게 다가가 피고인 A는 블록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피고인 B도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찬 후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강취하고,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고인 A 행위수법 위험성 높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피고인 B는 초범)
선고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례13]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새벽에 만취한 피해자의 먹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현금 5만 원을 강취하고, 치료일수 불상의 비부출혈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례14]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새벽에 열린 문을 통하여 피해자(여성)의 집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발각되어 도망가다가 피해자에게 오른팔을 잡히자 피해자를 길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슬관절부좌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례15]

범죄사실	야간에 피해자(여성)을 뒤따라가 열려진 문으로 피해자가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현금 41,000원 등을 강취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특수강도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범행(집행유예 결정자),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3년 6월	

[사례16]

범죄사실	피해자(남성) 경영의 상품권 교환소에서 미리 준비한 펜치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친 후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찰과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계획된 범행, 범행수법의 위험성 높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강도범행 미수, 상해 정도 경미함
선고형	징역 3년 6월(향소기각)	

[사례17]

범죄사실	새벽에 보행 중인 피해자 A(남성), B(여성)에게 접근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린 후 현금 5만 원 등을 강취하고,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계획된 범행, 범행수법의 위험성 높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선고형	징역 3년 6월(향소심 파기, 징역 2년 6월)	



[사례18]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열려진 문을 통하여 물건을 훔치러 피해자(남성)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멍살을 붙잡히자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상습절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범행(집행유예 결격자)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음, 피해자 처벌 불원
선고형	징역 2년(항소심에서 병합)	

[사례19]

범죄사실	피해자 A(여성) 경영의 의류매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B가 현금 535,00원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둔 채 옷을 고르자 위 핸드백을 가지고 도망가다가 피해자 A에게 붙잡히자 입으로 손등을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교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상습절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범행(집행유예 결격자)
	유리한 요소	반성,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선고형	징역 3년 6월(항소기각)	



[사례20]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새벽에 피해자(여성)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현금 7만 원을 강취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강도강간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범행(집행유예 결정자), 미합의
	유리한 요소	반성,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4년(항소심에서 병합)	

[사례21]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야간에 혼자 가게를 보고 있는 피해자(여성)를 발견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린 후 현금 48만 원을 강취하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이중 범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범행(집행유예 결정자),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4년(항소기각)	

[사례22]

범죄사실	야간에 술에 취한 피해자(남성)에게 접근하여 얼굴 등을 수회 때린 후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강간치상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범행(집행유예 결정자), 상해 정도 중합, 미합의
	유리한 요소	반성
선고형	징역 4년	



[사례23]

범죄사실	야간에 피해자 A(여성)의 집에 환기용 유리창을 통하여 침입한 후 서랍장을 뒤져 보석함을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자 피해자 A와 그 딸인 피해자 B를 때려 피해자 A에게는 약 4주, 피해자 B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상습절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범행(집행유예 결정자), 범행수법 전문적,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선고형	징역 4년(항소기각)	

[사례24]

범죄사실	오전에 현금을 인출 중인 피해자(남성)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석재타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의식을 잃게 한 후 현금 13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강취하고, 치료일수 불상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수법의 위험성 매우 높음,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선고형	징역 3년 6월(항소심에서 합의되었으나 항소기각)	

5. 광주지방법원

[사례1]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야간에 귀가하는 피해자(여성)를 뒤따라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현금 49,000원, 휴대폰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강취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
------	--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례2]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야간에 보행 중인 피해자(여성)에게 다가가 핸드백을 낚아채다가 반항하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차 핸드백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동종 전과 없음, 강도범행 미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선고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례3]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남성)와 술값 계산에 대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현금 44만 원을 강취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벌금 전과 1회,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장애인인 처와 딸을 부양,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례4]

범죄사실	새벽에 술에 취한 피해자(남성)에게 접근하여 지갑을 꺼낸 다음 미리 준비한 회칼로 위협하고 뺨을 치면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계획된 범행, 범행수법의 위험성 높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음, 특수절도의 집행유예 전과 있으나 약 20년 경과
선고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례5]

범죄사실	오후에 피해자(여성)가 현금자동지급기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사무용칼로 위협하면서 왼쪽 손가락을 베고 현금 27만 원을 강취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수지 원위부열상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계획된 범행, 범행수법의 위험성 높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합의, 초범,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3년 6월(항소심에서 강도죄로 변경되고 파기, 집행유예)	

[사례6]

범죄사실	새벽에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남성) 운영의 제과점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발각되자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전완부열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계획된 범행, 범행수법의 전문성
	유리한 요소	반성, 합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3년 6월(항소기각)	



[사례7]

범죄사실	저녁 무렵 미리 보행 중인 피해자(여성)에게 접근하여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린 후 현금 5,000원 등이 든 손지갑 1개를 강취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상습절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범행(집행유예 결격자)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피해품 가환부,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4년(항소기각)	

[사례8]

범죄사실	야간에 보행 중인 피해자(여성)를 뒤따라가 가방을 낚아채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찬 후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강취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범행일로부터 약 4년 전 강도죄로 집행유예 선고
	유리한 요소	반성, 합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음,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3년 6월(항소기각)	

[사례9]

범죄사실	새벽에 출입문 틈 사이로 가구점에 침입하여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남성)의 지갑 1개를 빼었다가 발각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준비한 맥가이버칼을 꺼내어 그 손잡이 부분으로 옆구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계획된 범행, 범행수법의 위험성 높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음, 피해품 가환부,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3년 6월(항소심에서 합의, 파기, 집행유예)	



[사례10]

범죄사실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여성) 운영의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망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도망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 과두 골절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상해 정도 중합,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손해배상금 일부 공탁, 동종 전과 없음,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선고형	징역 2년(항소심에서 추가 공탁, 파기, 집행유예)	

[사례11]

범죄사실	여관방에서 커피 배달을 하러 온 피해자(여성)의 옆구리를 때리고 손톱 손질용 도구로 위협한 후 현금 30만 원과 휴대폰 1개를 강취하고,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골반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강도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범행(집행유예 결정자), 계획된 범행, 미합의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7년(항소기각)	



별지6

뇌물수수죄 양형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1]

범죄사실	구청 소속 9급 공무원인 피고인이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시 다른 경쟁업체보다 편의를 볼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15회에 걸쳐 합계 837만 원을 수수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초범, 공직생활 20년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례2]

범죄사실	공사 사장인 피고인이 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철거사업 등 직무와 관련하여 2회에 걸쳐 미화 2,000달러 및 일화 50만 엔을 교부받고, 대외비에 준하는 정보 제공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형법 37조 후단 관계에 있는 뇌물죄로 이미 처벌, 뇌물액이 그다지 많지 않음, 제공한 정보의 가치가 떨어짐
선고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례3]

범죄사실	구청 9급 공무원인 피고인이 구청 발주 공사 계약시 편의를 보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4회에 걸쳐 1,350만 원을 수수하거나 83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음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1,000만 원을 공여자에게 반환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례4]

범죄사실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인사청탁을 받거나 인사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함께 2,500만 원을 수수하고, 기업체로부터 재직 기간 중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고위직 경찰공무원, 수뢰액이 다액임
	유리한 요소	반성, 초범, 3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구체적 직무와의 관련성 높지 않음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례5]

범죄사실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인사청탁을 받거나 인사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함께 2,000만 원을 수수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수뢰액이 다액임
	유리한 요소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인사기준에 어긋나는 업무처리를 하지는 않음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례6]

범죄사실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PC방이 단속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만 원을 수수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부인, 반성하지 않음
	유리한 요소	수뢰액이 많지 않음,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례7]

범죄사실	구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무단 증축 등을 관대하게 처분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600만 원의 현금을 수수하고 3회에 걸쳐 합계 366,750원 상당의 향을 제공받음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담당 업무와 직접 관련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수뢰액이 다액은 아님
선고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항소기각)	

[사례8]

범죄사실	공사 간부직원인 피고인이 납품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수수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초범, 26년간 공사 근무, 수수한 현금의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례9]

범죄사실	국책은행 총재인 피고인이 부실기업에 대한 자산실사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미화 1만 달러를 수수하고, 뇌물로 사무실을 공여하겠다는 약속을 승낙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담당 업무와 직접 관련성 높지 않음, 수수한 현금의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선고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례10]

범죄사실	별정 5급 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이 담당하는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수수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부인, 일부 돈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교부 요구
	유리한 요소	수뢰액이 많지 않음, 수수한 돈 모두 반환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례11]

범죄사실	경찰공무원으로 사건 수사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수사 정보 제공 또는 수사 지연 등의 부탁을 받고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수수함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실제 수뢰액은 1,450만 원(일부 공소시효 완성), 수사 정보를 제공하기도 함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초범
선고형	징역 8월(향소심 파기, 집행유예)	



[사례12]

범죄사실	시청 6급 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이 담당하는 택시운송사업의 인·허가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12회에 걸쳐 함께 40,428,000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수뢰액이 다액, 주요 범행 부인, 차명 계좌를 통하여 뇌물로 수수한 금원을 관리
	유리한 요소	초범, 수수한 돈을 공여자에게 반환
선고형	징역 10월(항소기각)	

[사례13]

범죄사실	검사인 피고인이 내사 대상자로부터 선처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함께 1,000만 원을 수수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역 종사, 담당 업무와 직접 관련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초범
선고형	징역 1년(항소심 파기, 집행유예)	

[사례14]

범죄사실	고위직 군인인 피고인이 납품업체에 요구하여 10회에 걸쳐 휴가비, 여행경비, 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함께 34,683,900원을 수수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 범행의 상당부분 부인, 수뢰액이 많음
	유리한 요소	
선고형	징역 1년 6월(항소심 파기, 징역 1년)	



[사례15]

범죄사실	국립연구원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11회에 걸쳐 합계 18,300,000원을 수수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담당 업무와 직접 관련, 수뢰액이 적지 않음
	유리한 요소	초범, 소아마비로 거동 불편
선고형	징역 10월(항소기각)	

[사례16]

범죄사실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업체로부터 20,000,000원을 수수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담당업무와 관련성 높음, 수뢰액 적지 않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선고형	징역 1년 3월	

[사례17]

범죄사실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사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0,000원을 수수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담당업무와 관련성 높음, 수뢰액이 적지 않음
	유리한 요소	초범, 2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수수한 돈 모두 반환
선고형	징역 1년 6월	



2. 대구지방법원

[사례1]

범죄사실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사건을 무마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수수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부인, 참고인을 회유·협박하여 수사 방해, 담당업무와의 관련성 높음
	유리한 요소	초범
선고형	징역 1년(항소기각)	

[사례2]

범죄사실	소방공무원인 피고인이 각종 소방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4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수수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담당업무와의 관련성 높음, 뇌물공여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정이 나타남
	유리한 요소	초범, 30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선고형	징역 1년 6월(항소심 파기, 징역 1년)	

3. 부산지방법원

[사례1]

범죄사실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학부모 7명으로부터 현금, 화장품 등 합계 1,792,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학부모들에게 뇌물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초범, 수뢰액이 많지 않음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항소심 파기, 선고유예)	



[사례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감리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수수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담당 업무와의 관련성 높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초범, 수수한 돈을 감리단 직원과 나누어 쓰거나 감리단 경비로 사용
선고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례3]

범죄사실	구치소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납품 및 검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3명의 납품업자로부터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0,400,000원을 수수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담당 업무와의 관련성 높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벌금 전과 1회
선고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항소기각)	

[사례4]

범죄사실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000원을 수수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담당 업무와의 관련성 높음
	유리한 요소	수뢰액이 많지 않음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례5]

범죄사실	구청 건축과 공무원인 피고인이 건축 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20,000,000원을 수수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담당 업무와의 관련성 높음, 수뢰액이 적지 않음
	유리한 요소	자백, 반성
선고형	징역 1년 3월(항소심 파기, 집행유예)	

4. 광주지방법원

[사례1]

범죄사실	세무공무원인 피고인 A는 자신이 팀장으로서 세무 조사를 진행한 업체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는 세무에 대한 고충신청을 신청 내용대로 처리하여 준 사례비 명목으로 7,000,000원을 수수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담당 업무와의 관련성 높음
	유리한 요소	초범, 파면됨, 반성
선고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례2]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각 중학교 행정실장, 피고인 C는 중학교 교장인데, 피고인 A는 교구 납품업자로부터 납품계약에 따른 대가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25,800,000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는 교구 납품업자로부터 납품계약에 따른 대가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29,060,000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를 통하여 교구 납품업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9,500,000원을 수수	
------	---	--



양형요소	불리한 요소	담당업무와의 관련성 높음, 피고인 A, B는 수뢰액이 적지 않음, 피고인 C는 교육자로서 고도의 윤리성 요구됨
	유리한 요소	초범, 수수한 금원 중 일부 반환
선고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